금주의 법구–〈잡보장경〉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4월 11일)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조계종은 5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 증명법사로 사자좌에 오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만년정토 위한 '화합' 백만등불 밝히자"

조계사 등 전국 사찰, 불기 2563년 봉축법요식 봉행

與野 대표 등 정치인 대거 참석
사부대중 1만여 명 운집해 축하
故김용균 모친 등 초청해 헌화도
文 "자비심으로 南北평화 이루길"

글=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심을 찬탄하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됐다. 이날 사부대중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의 연등을 밝힐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조계종 스님들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단들이 대거 참석해 불심(佛心)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아울러 봉축법요식에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 故황유미 아버지 황상기 씨,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고 故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 이영문 · 윤미자 씨, 나눔의집 이옥선 할머니가 초청돼 헌화를 하는 등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했다.

文 대통령 올해도 메시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처님오신날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한국불교가 극복의 원동력이 됐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봉축메시지에서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에는 불교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며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은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법정사 · 범어사 · 동화사 · 대흥사 · 화엄사 · 김룡사 등은 독립운동 확산의 전진기지였다. 나라의 위기마다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며 등불이 된 불교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가 보여준 화합의 정신은 깊은 울림을 준다. 불교의 화쟁 사상과 원융회통 사상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족 · 지역 · 성별 ·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의 원력이 실현되길 바라며 자비심을 바탕으로 남북이 평화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 "自性 밝히길"

봉축법요식의 증명법사로 사자좌에 오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불자와 국민들이 자성(自性)을 밝힐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지구촌 곳곳은 배타적 종교와 극단적 이념으로 테러와 분쟁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원한과 보복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류는 개개인 스스로가 바깥으로 치닫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자성을 밝혀야 한다. 본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원래 옳고 그름이 없다"고 설했다.

이어 "누구라도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면, 나와 남이 없어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온 인류가 한 가족이요, 온 우주가 한 몸이 된다. 그리하면 처처(處處)가 극락정토요, 물물(物物)이 화장세계"라면서 "모든 불자와 국민, 그리고 인류가 참나를 밝히는 수행으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축사에서 화합의 원력과 실천을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스님은 봉축사에서 "화쟁(和諍)이라는 장명등(長明燈)을 마당에 켜놓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 온 우리 민족은 5천년동안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다"면서 "삶이 힘들고 험난할 때마다 일심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니, 이제 만년의 정토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은 화합(和合)이라는 백만등불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합은 우리를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함을 만드는 출발점이요, 종착점"이라며 "쉼 없이 정진하면서 백만원력이라는 등불로 우리 국토를 환하게 밝히자"고 서원했다.

법요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끝으로 발원문을 낭독하며 소외된 이웃과 편견으로 고통받은 중생들을 내 몸같이 여기며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요식에서는 불교 홍포에 공헌을 한 불자들을 시상하는 불자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 이현세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김병주 前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방송인 전원주 씨가 선정됐다.

"파송 규율 미준수 전역처리 적법하다"

前 군승 박 씨 취소 소송 서울고법 항소 기각 판결

군종장교로서 파송주체 종단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를 어겨 승적 박탈 및 품위를 실추한 전직 군승에 대한 전역처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최근 전직 군승 박 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하고도 사실을 숨겼다가 승적이 박탈돼 장교 품위를 실추했고 제적 처분 직후 태고종으로 종단을 옮기는 등 신의없는 행동을 한 점에 비춰볼 때 군(軍)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방부의 전역처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4월 26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직 군승 박 모씨는 결혼으로 지난 2015년 조계종 승려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2017년 국방부 군종윤리위에서의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으로 전역조치 됐다. 이에 박 모씨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앞서 유사한 사례인 김 모씨의 경우 독신 예외조항이 제거된 2009년 조계종 종헌 개

"현 군불교의식 조계종 통일, 종교활동 업무 수행도 불가"

정 이전 사실혼 관계의 인정과 조계종 승적 박탈을 이유로 군종장교 전역조치는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현재 국방부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모씨의 경우 김 모씨와 달리 2009년 종헌 개정 이전 사실혼 관계 형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과 종헌 개정 이후인 2011년부터 조계종 승려 자격 박탈인 2015년까지 혼인사실은닉한 부분이 이번 항소 기각의 주요 사유가 됐다.

특히 법원은 4년간 혼인사실을 숨기고 군승 신분 유지를 위해 종단을 바꾸는 것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법원은 파송주체인 조계종의 승적이 없는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법원은 "국방부는 조계종만을 군종 병적 편입 종교로 선정했으며, 모든 군 사찰들은 조계종 군종교구에 등록돼 있다"며 "군종 장교의 주된 업무인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 이상 '군종장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 국방부 판단은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 줬다. 노덕현 기자

다음 주 신문 휴간합니다.

65세 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총무원장 : 혜 인 사서실장 : 천 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흥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돈암동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511-2028 총무원장실 : 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 samhwade@hanmail.net

동아시아 불교학·문헌사 등 5월 대형 학술행사 '풍성'

동아시아 불교 문헌 교류부터 한국과 중국 불교학계 경향을 분석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HK연구단(원장 겸 단장 김종욱)은 5월 18일 오전 10시 교내 신공학관 4212호 강당에서 봉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에 유전된 한국불교 문헌과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불교 문헌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으로 전해졌고, 활용됐는지를 조명하는 한·중·일 불교학자들의 강연과 논문들이 소개된다.

오전 강연에서는 팡구앙창(方廣錩) 상하이사범대 교수가 '중한불교 교류 영향'을, 오치아이 토시노리(落合俊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교수가 '일본에 전해진 고려금자대장경-그 저본의 계보를 찾아'를 주제로 강의한다.

오후에는 조세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박사가 '일본 고산사에 유전된 한국불교문헌'을, 당위엔(定源) 상하이사범대 교수가 '의천이 송나라에 들여온 고려불교문헌의 서전(西傳)'을, 김천학 동국대 교수가 '〈보살계본종요초〉의 문헌적 가치와 태현 인식'을 발표한다.

한중일 학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동아시아에 유전된 한국불교문헌 연구의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 불교학 연구의 최신 성과와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서울대 철학연구소(소장 강진호)는 5월 18~19일 양일간 서울대 14동 204호에서 '한중 불교학의 대화-최신 연구성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불교학 연구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논문들이 소개된다. 첫날 학술대회에서는 △인도와 중국 불교 논서를 통해 본 'Buddha-vacana' 개념의 의미 변천(조은수, 서울대 교수)을 비롯해 △현대 불교교학의 흥기(興起)(저우구이화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중국 초기불교의 법신(法身)에 대한 이해(하유진, 서강대 철학연구소) △불법의 진실과 방편에 대한 시론(장창성,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이해력과 신해력(信解力)에 관하여(펑우안전 중산대학 철학계) 가 발표된다.

둘째 날에는 △결정취(決定趣)와 견도(見道)(밍시엔, 우한시불교협회 부회장) △소밀(疏密)과 횡수(橫豎), 두 시선의 교차-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제1권 '초장중가의(初章中假義)'를 중심으로(조윤경, 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강진호 서울대 철학연구소장은 "최근 불교학계의 새로운 동향으로 중국 불교학계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이제 중국의 학문적 수준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위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대가 중국의 학자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최초의 학술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석학 마크 시더리츠 교수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경향을 점검하고 서로 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술 교류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등 주요 불교계 학술단체들도 춘계대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5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과 중도 개념의 쟁점'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봉축 맞아 국제 학술대회 韓불교 문헌들 전파 조명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한·중 불교학계 경향 살펴 석학 시더리츠 교수 참석

불교학회·불교학연구회 등 주요 학술단체들 춘계대회 제주 봉려관 스님 조명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바정토-불교적 이상사회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제2회 성운학술상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 불교 중흥조 봉려관 스님의 항일운동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예정돼 있다.

(사)봉려관선양회와 두옥문도회는 5월 25일 오후 2시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의 여성리더 봉려관 항일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비구니 항일운동이 공론화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신성민 기자

거세지는 진각종 총인일가 사퇴운동

진각복지재단 성폭력사건 위드유연대 기자회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진각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의 아들 A씨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재단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진각종 총금강회(신도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총인일가 사퇴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진각복지재단 성폭력사건 위드유연대'는 5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 일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내부제보실천운동·다산인권센터·동덕여대총학생회·성평등불교연대 등 20여 불교·시민단체가 동참했다. 특히 진각종의 총신도회인 총금강회도 기자회견에 참석, 총인일가와 재단 대표이사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위드유연대는 △서울시 특별감사관들의 부실한 조사 △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의 피해자 협박 △총인 회정 정사와 정계인사의 유착관계 등을 문제제기했다. 위드유연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재단 대표이사인 원혜 정사(총인 前비서실장)는 피해자 면담에서 "A는 좀 못생겼으니까 나 같이 잘생긴 정사님이 그러면 괜찮고?" "시집 못 간다"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또한 총인 회정 정사는 녹취록에서

재단 대표이사 피해자 면담서 2차 가해성 발언, 녹취 공개

진각종 신도회 "지도부 퇴출" 대표이사 "발언 취지 왜곡돼"

"종암경찰서 정보관이 찾아와 고소장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며 "이 정보관 승진을 위해 국회의원 B에게 전화해 잘 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위드유연대는 이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총인과 종암경찰서 정보관, 울산지역 국회의원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진각복지재단 성폭력사건 위드유연대가 5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각종 총인과 아들 A씨, 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의 사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위드유연대는 "이번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진각종 총인은 종암경찰서 정보관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의 조사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재단 대표이사는 울산 국회의원을 통해 해당 정보관 승진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면서 "진각복지재단의 '슈퍼 갑'이라 할 수 있는 로열 패밀리의 위력에 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서는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도 총인일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식 총금강회장은 "총인으로서 본인 자녀를 복지재단 관리직에 앉히고, 참회하지 않은 채 변명과 회피에 급급하며 막말과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모습에 70만 신교도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총인일가와 대표이사의 반인륜적이고 반종단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당사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종단에서의 퇴출을 위해 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드유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혜 정사는 "피해자들과 나눈 3시간의 대화 중 안 좋은 부분만 악용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다른 시설 발령을 원하면 해주겠다고 얘기한 게 대부분"이라며 "소송이 길어질 때 힘들지 않겠냐는 걱정과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이었다. 피해자가 불편했다면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효잔치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오늘은 스님들이 어르신 아들·딸"

조계사 제1회 장수어르신 초청 효잔치

서울 조계사가 어버이날을 맞아 사찰 앞뜰을 거대한 효잔치 마당으로 꾸몄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8일 제1회 장수 어르신 초청 효잔치를 개최했다. 청명한 날씨 속에 펼쳐진 이날 효잔치에는 종로구 관내 17개동 80세 이상 어르신 170명과 80세 이상 조계사 신도 100여 명이 초청돼 육개장과 다과 등 점심을 공양받았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초청해 자리를 마련하고 보니 팔순이 넘은 저희 어머니가 생각난다"며 "오늘만큼은 스님들이 어르신들 아들, 딸이 돼드리겠다"고 말했다.

함께 효잔치를 준비한 신도들을 대표해 정미령 신도회 수석부회장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좋은 것을 내주고 항상 기도해 주신다. 시대가 지나도 효는 모든 것의 근간"이라며 "오늘 신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며 준비했다"고 말했다.

광화문에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강의를 끊어준 백송대학에서 수강하고 있다는 김다선(84) 씨는 "스님들께 공양을 받으니 황송할 따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금강대 노조 파업 교육부 감사요청

부당징계해고 등 사유로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강대학교지부(이하 금강대노조)가 5월 7일 조합원 부당징계해고·단체협상 조정결렬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금강대노조는 4월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금강대노조는 "2017년 7월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학교 측이 위임장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교섭해태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금강대노조는 이와 함께 최근 전임 총장의 성추행 의혹과 학교 운영상 비위사실 등을 언론에 알린 조합원에 대한 학교 측 징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강대노조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노조 지부장을 해임하고, 조합원 2명을 파면·해임했다.

유휘종 지부장은 "학교 운영에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데도 책임지고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한 노조를 학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며 탄압하고 있다"면서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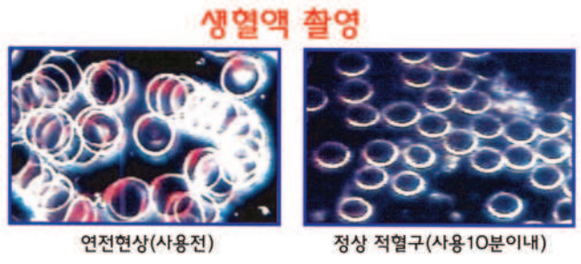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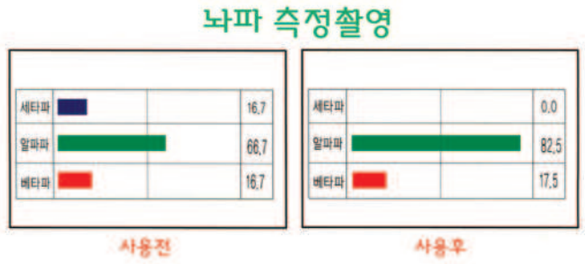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놔파 측정촬영



검버섯 제거 현상



日 소재 백제금동관음입상 환수 본격화

문화유산회복재단 등 5월 8일 부여군청서 기자회견

정성 · 정량적 환수 방법 전개
부여군의회도 관련 조례 추진
"환수 행정 · 연구 지원에 방점"

관음상 현재 中 반출돼 전시
"수 · 당 영향"… 백제는 삭제
동북공정통한 역사왜곡 가능성
"관음상 환수, 불교도 나서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일본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에 대한 국내 환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과 충청남도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단장 김연)은 5월 8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은 "1945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환수한 문화재는 모두 10,120점이며 그 중 4건만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일본으로 반출된 백제금동관음입상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제금동관음입상은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리 들판에서 발견한 두 점의 금동관음입상 중 한 점이다. 당시 일본 헌병대에 압수되었다가 경매를 통해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가 사들여 일본으로 반출됐다.

1930년대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지만 지난해 여름 일본 기업인에 의해 국내에 공개됐다. 현지에서 관음상을 실견한 학자들은 백제 최고의 불상조각이라고 평가했고, 이에 환수 여론이 확산됐지만 환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부여군과 충남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연구 등을 진행했고, 지자체 차원의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문화유산회복재단과 조사단은 "문화재청 · 국립박물관 · 충남도 · 부여군 · 국회 등이 참여하는 뉴거버넌스를 구성해 국내 전시 등을 통한 연내 환수 합의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그간 관음상의 환수를 물질에 의존한 정량적 접근만 해왔다. 앞으로는 조사 · 연구 · 전시 등을 통한 정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관음상 환수를 위한 정성 · 정량적 방법을 모두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리 들판에서 발견된 백제금동관음입상.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지난해 여름 확인됐다. 현재는 전시와 연구를 위해 상하이박물관으로 이운된 상황이다.

환수를 위한 부여군 차원의 지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에는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 환수 활동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된 상황으로 오는 5월 17일 제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부여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 환수 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및 활동 사항 △환수 및 관리 △기관 및 단체의 지원 ·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국외 문화재 환수와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상우 의원은 "부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 역사도시 중 한 곳이다. 하지만 국외로 반출된 부여 소재 문화재들이 많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환수를 위한 조사단 구성과 조사 · 연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제금동관음입상이 최근 중국으로 반출돼 현재 상하이박물관 문물보호과학기술센터에 소장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이제 불교계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제 관음상이 중국미술의 꼬리표를 달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으로 반출된 백제금동관음입상은 연구 · 분석 이후 상하이박물관의 '영원한 실크로드-불교예술의 기원' 전시회에 출품된다. 관음상의 분석은 중국 불상 전문가인 계숭건(季崇建) 상하이시각예술대학 문물보호복원학과 부원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음상에 대해 계숭건 부원장은 "금동관음입상은 비록 한국의 삼국 시대 작품이지만 중국 수나라 시기의 불교 조각상 제작 수법의 영향을 받았다. 당나라 시대의 관세음입상의 3단 곡절형 예술적 특징을 반영했으므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설을 입수 · 제보한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는 "6세기만 가도 삼국은 독자적 형식의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7세기 백제 불교미술은 전성기를 맞았다. 일부 영향은 받았겠지만, 중국불교미술의 일부라는 꼬리를 달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청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우리 국보급 문화재가 역사 왜곡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 불교계도 환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관음상의 한국 전시가 추진되고 이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제10차 대강좌 개강

대승불교의 핵심경전인 〈화엄경〉과 남방불교의 기본수행서인 〈청정도론〉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5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제10차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대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서는 〈화엄경〉 입법계품, 남방불교 수행서인 〈청정도론(위숫디막가)〉, 동방의 이슙우화로 불리는 〈백유경〉, 조주 스님의 〈조주록〉 등에 대한 강의가 매주 1회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 내용은 해인사 前승가대학장 원철 스님의 〈화엄경〉,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청정도론〉, 서재영 박사의 〈백유경〉,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의 〈조주록〉이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해 중도 정견으로 생활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경전에 참뜻을 익히고 실천해 행복의 길로 가길 바란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불교인재원은 대한불교진흥원과 경주 황룡원에서 5월 26일부터 '밝은 마음 화두 명상 캠프'를 연다.

노덕현 기자



법륜사에서 사찰예절을 배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北이탈주민 적응 도운 템플스테이

용인 법륜사, 5월 4~5일 새터민 가족 대상으로

용인 법륜사가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법륜사는 5월 4~5일 경내에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내 꿈을 응원하고 이뤄가는 행복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템플스테이는 △사찰예절 교육 △산사음악회 △소원등 만들기 △새벽예불 △전통다례 등이 진행됐다.

첫날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불교의 전통예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람의 구조와 사찰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전통사찰음식으로 저녁공양을 마치고, 함께 산사음악회를 즐겼다. 저녁에는 각자 자신의 소원을 적은 '달님등 만들기'를 체험하며 소원성취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튿날에는 새벽예불 이후 법륜사 둘레길인 '다시 꿈꾸길'을 산책했다. 이어 스님과 함께 전통다례체험을 하며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다도법을 배웠다.

윤호섭 기자

봉은사, 거사불교 중흥 나선다

5월 10일 '거사림회' 창립법회 봉행

사회 각계 130명으로 구성
정기법회 및 포럼 강연 등
새 신행문화 개척에 기대

"천년고찰 정법포교도량 1번지 봉은사에서 거사림회 창립법회를 맞이한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불국토로 나아가도록 불퇴전의 용기를 주옵소서."

5월 10일 봉은사 법왕루가 우렁찬 남성불자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처음으로 거사불교를 되살리기 위한 거사림회를 창립한 것이다. 거사림회는 청신사(우바새)로 구성된 남성불자 신도회다.

이날 창립법회는 경과보고와 회장단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주지스님의 인사말, 신도회장 축사, 거사림회 회장 인사말, 봉은국악합주단의 축하공연, 발원문 봉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10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여 거사림회 발족을 축하했다. 이번 봉은사 거사림회에 가입한 남성불자들의 면면을 보면 윤석일 거사림회 회장을 비롯해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방송계, 예술계 등 사회 각계 각층 남성불자들로 이뤄져 있다. 신도회에 따르면 윤 거사림회장은 강원도민중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노원구에서 구소년고녀장학위 위원과 대신고 장학위원 등을 오랫동안 지냈다.

봉은사 거사림회는 구성까지 치열한 과정을 거쳤다. 봉은사는 2018년 신도회 내 거사림회 창립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에 올해 3월부터 신도회 운영위원회와 사찰 종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사림회 창립을 준비해왔다.

봉은사는 당초 108명의 회원 확보를 목표로 진행했지만 올해 3월 20일 회원 모집 공고 후 가입신청서 제출한 불자가 150여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주지 스님과 사중 스님,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임원들로 구성된 거사림회 인선위원회를 조직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130명으로 최종 거사림회 구성을 완료했다.

봉은사 거사림회는 향후 월 1회 정기법회를 비롯해 사회 저명인사의 초청강연과 포럼, 순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은사에서 남성불자들로 구성된 거사림회 창립은 최근 신도수 감소로 포교전략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종단적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봉은사 거사림회의 발전적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라고 격려했다.

김상훈 봉은사 신도회장은 "130여 명의 거사림회 회원의 숫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신도회의 지원을 통해 거사림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겠다. 우리 남성불자로 구성된 거사림회가 한국불교 신행에 있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일 거사림회 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삼보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수행결과를 실천하겠다. 회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으로 거사림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산사의 신록' 기차 타고 즐겨볼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템플스테이 및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1박2일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운영한다. 5월과 6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차로 이동하기 좋은 양평 용문사,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와 인근 명소를 결합했다.

가장 먼저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용문사 템플스테이는 '가정의 달, 힐링여행'을 주제로 5월 18~19일 진행된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낙산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은 6월 8~9일 진행된다. 동해 일출 감상과 참선, 스님과의 차담 등이 마련돼 있다. 인근 관광지로 대관령 치유의숲과 대관령 양떼목장 등을 방문한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백담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은 6월 22~23일이다. 요가형 108배, 숲 명상, 연꽃등 만들기 등의 체험이 준비돼 있다. 인근 명소로 원대리 자작나무숲과 춘천육림고개시장 등을 살펴본다. 1544-7744

윤호섭 기자



“미래사회 동량으로 거듭나길”

연등장학재단, 고교생 · 대학생 20명에 장학금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은 5월 5일 경북 군위 제2석굴암 비로전에서 제14회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설립 15년을 맞이한 연등장학재단은 이날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자리이타의 보살도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나갈 대들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했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열심히 소양을 갈고 닦아 미래사회의 동량이 되어 인생을 자신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마음은 그리는 대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려,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연등장학회 이사장 법등 스님은 2004년 사재 6억 원과 임야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설립 이후 장학기금조성에 매진해 2008년 임야, 사재를 더해 현재 8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577명의 학생들에게 4억 5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전통한지 아름다움 알린 전시회

고창 선운사 5월 4~12일 작품 120여 점 선봬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찬란했던 한지의 명성을 되찾고, 전통한지를 재해석하는 한지전시회가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5월 4일 선운사 만세루에서 ‘부처님 전에 천년 한지를 담아내다’ 전시회를 개막했다. 5월 12일까지 이어진 한지전시회서는 11명의 작가들이 출품한 한지 발우, 장유병, 차상, 문갑 등 한지공예품 50여 점과 납골함, 추상성이 돋보이는 한지 현대조형작 50여 점, 한지수의, 한지납골함, 반려동물 수의 등 장례용품 등 총 120여 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경우 스님은 “한지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천년의 역사를 알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져 다양한 불교문화 속에서 한지의 쓰임새를 엿볼 수 있다”며 “자연과 호흡하려했던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문화적 우수성과 미술사적 역량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들리지 않아도 부처님 사랑해요”

부산 보광사 청각장애인, 봉축 맞아 만발공양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비빔밥을 제공하는 만발공양을 펼쳤다.

부산 기장 보광사(주지 도원)는 5월 5일 아름공원 일대에서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비빔밥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지 도원 스님과 청각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도원 스님은 “처음에는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급히 사찰에서 새로 밥을 짓고 다시 공양을 올렸다”며 “청각장애인과 봉사자 모두에게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광사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법회를 이어오다 2018년 12월 16일 기장으로 이전, 새롭게 문을 열고 사찰명을 여래사에서 보광사로 변경했다. 보광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주지 도원 스님이 직접 수화로 법문해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 노후의 ‘희망역’ 되다

영도구노인복지관, 어버이날 바자회 및 만발공양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이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을 진행하고 의료 치료비 지원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전문화된 복지관 서비스뿐 아니라 독거 어르신 및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활동을 펼쳐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희망역’ 으로 불리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혜원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은 5월 7일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바자회 및 만발공양’ 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들어서자 복지사들은 어르신들의 옷깃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건강을 기원했다.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마당에서는 바자회가 열려 북적거렸다. 바자회서는 영도구노인복지관 어르신봉사단이 직접 나서 부침개를 만들고, 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기쁨을 함박웃음으로 표현했다. 나이가 많아도 이웃을 위해 활동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출 수 있어 기쁘다는 말도 덧붙였다.

바자회는 옷, 잡화 및 먹거리를 판매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의료지원금을 마련했으며, 만발공양은 복지관을 찾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만발공양은 총 500인분의 떡과 음료 그리고 소고기국 등 만찬으로 준비됐다.

관장 선공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 특식을 마련했다”라며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은 2001년 11월 개소해 2006년부터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혜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도구는 노인

의료지원금 마련 행사 열려
어르신들 공양과 선물 전달
각종 노인복지사업 전개하며
지역 자살률 감소에도 한몫

인구 비율과 독거노인 사망률이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원도심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한 지역이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지역에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체계적인 독거노인 관리가 뛰어나 영도구 내 은둔형 및 우울증 어르신을 사회 속으로 이끌어냈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이 실시한 ‘독거노인친구만들기 프로젝트’ 는 영도구 내 고독사를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되찾도록 도와준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 프로젝트’ 는 2014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사회복지법인 혜원 영도구노인복지관은 5월 7일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바자회 및 만발공양’ 을 진행했다.

선공 스님은 “영도구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이 두 곳이나 있다. 복지관에 나오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사회성이 있는 분들이지만 은둔형 외톨이와 우울증,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을 파악하려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노인 주거 및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고위험군에 속한 어르신을 연결, 사회 속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은 현재 6000여 명의 독거어르신을 관리 중이며, 노인 자살률 및 고독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선공 스님은 “은둔형 어르신들을 찾아가면 처음에는 오물을 던지는 등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에 복지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하지만 그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가면 나중에는 남을 위해 봉사까지 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이외에도 △취미여가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사업 △정서지원사업 △급식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노인 복지사업을 이끌고 있다.

부산 5번째 천태도량 ‘해영사’ 낙성

해운대구 구민 전법도량
지하 2층 · 지상 5층 규모

천태종 해영사가 부산 해운대지역에 전법기도도량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낙성식에서 천태종은 “불국토를 만드는 인연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부산 해운대 천태전법도량 해영사(주지 세운)는 5월 6일 관음전에서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해영사는 광명사, 삼광사, 용평사 등에 이어 5번째로 부산서 문을 연 천태종 사찰이다. 부지는 대지면적 211평, 연면적 750평이며, 사찰은 지하 2층 ·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낙성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주지 세운 스님을 비롯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산 해운대 천태 전법도량 해영사가 5월 6일 관음전에서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은 테이프 절단식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 △상월원각조사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 △개회사 △법어 △치사 △축사 △축가 △관음정진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도용 스님은 “깊은 신심으로 불사를 서원하고 원력이 하나 되어 모든 난관을 극복해 장엄한 도량을 이룩했다”며 “무량한 공덕은 바다와 같이 깊고 넓다”고 치사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무수무량의 길상인연이 모인 지혜의 터전이고, 무한무변의 공덕이 쌓인 복락의 불토”라며 “나라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일체중생의 해탈지견을 열어주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해영사는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인연이 될 것”이라며 “해영사가 한 중생이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줄 수 있도록 우리 천태불자들이 기도정진하자”고 당부했다.

해영사는 포교활성화를 위해 1997년 前삼광사 주지 춘광 스님과 덕수 스님이 종교부지를 매입했으며, 2015년 종정 도용 스님으로부터 해영사(海泳寺)라는 사찰명을 받아 11월 19일 기공, 2018년 7월 상량식을 봉행했다. 해영사 내부에는 기도실 및 법당, 종무소와 공양실 등이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 구민을 위한 천태기도 전법도량으로 건립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로터스관 기부 잇달아

생활풍수동문 · 대운사 각각 2천만원

동국대 로터스관 불사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위한 기부가 이어졌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회장 도심)가 출범을 기념해 학교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사진>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과 서병열 수석부회장은 5월 3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찾아 "로터스관 건립에 사용해달라"며 기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과 '다라니회 모임' 신도들이 같은 날 "불교 ·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주석 스님과 법계사 주지 묘련 스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문화예술사단법인 KUmuda 이사인 탤런트 견미리 씨 등이 참석했다.

주석 스님은 "다라니회 모임에서 매주 걷는 회비를 1년에 한 번씩 좋은 일에 회향하고 있다. 올해는 종립 동국대 인재양성에 활용하는데 도반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오신날 맞아 수계법회

광동학원 법인 산하 3개 학교 참여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로 거듭났다.

광동학원은 5월 8일 법인 산하 3개 학교에서 수계식을 봉행했다. 광동중학교와 광동고등학교의 수계식은 교내 강당서 학생 1300여 명과 교직원, 학부모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수계식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이 수계법사로, 봉선사 사중 스님들이 연비사로 나섰다.

앞서 의정부 광동고등학교에서는 오전 10시 학생 630명과 교직원, 학부모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식이 열렸다. 수계법사로 미륵암 주지 혜공 스님이, 연비사로 회룡사 사중 스님이 참여했다.

이날 3개 학교의 수계식을 위해 광동학원 설립 본찰인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관)와 회룡사(주지 성원), 석남사(주지 능인)는 떡과 기념품을 지원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사장 일면 스님도 수계첩과 고급 합장주를 수계 불자들에게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올바른 역사의식 청소년에 전해요"

Interview

태극기디자인공모전 여는 능화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불교계를 대표해 다양한 역사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으로 제1회 태극기문양 디자인공모대전을 펼치는 인천시박물관협의회장 능화 스님(범패 민속문화박물관장)은 5월 8일 청소년 역사인식 고취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능화 스님은 지난 2월 13일 제12회 정기총회서 사단법인 인천시박물관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취임 후 능화 스님은 2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협의회 소속 29개 회원 박물관과 함께 '기미독립선언서 100주년 기념사업' 을 펼치고 있다. 특히 3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1회 태극기문양 디자인공모대전을 통해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고 있다.

능화 스님은 "이번 사업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지역 3.1운동 관련행사에 참여, 인천이 일본에 대항해 3.1운동에 함께 참여했음을 알리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6월 28일까지 공모전 개최

8월 9일부터는 우표전시회

"근현대 불교계 활동 조명"

기념사업은 태극기문양디자인전국공모전과 함께 태극기 우표전시회, 역사유적탐방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태극기 우표전시회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8월 9일부터 22일까지 3차 전시가 진행된다. 여기서는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주제로 만든 우표 등이 선보인다.

또 9월까지 총 6차에 걸친 역사유적탐방이 이어진다. 1일간 황어장터, 길직교회, 강화역사박물관을 탐방하는 제1코스와 1박2일간 덕적도에 있는 3.1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제2코스, 1일간 황어장터와 독립기념관을 탐방하는 제3코스가 준비돼 있다.

능화 스님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선조들이 지켜온 이 나라의 역사를 직접 보고 깨닫게 해주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능화 스님은 그동안 한국전통문화를 전하는 데 앞장서왔다. 2002년 인천무형문화재 범패와 작법무 예능 보유자로 지정, 2008년 한국박물관협회 범패박물관을 개관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6년부터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 부회장으로 기관 유대관계에도 힘썼다.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이기도 한 능화 스님은 매년 현충일에 순국선열 추모 현충재를 펼쳤다. 불교의 호국정신과 우리 전통문화의 접점을 모색한 결과다.

스님은 "만해 스님과 같이 나라가 어려울 시기 불교는 구국의 정신으로 앞장섰다. 불교로만 보아도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문화역사탐방, 순례프로그램과 청소년 역사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현대 불교계의 활동을 알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올해는 인천에 큰 행사들이 많이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천시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한 해로 만들자"며 대중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는 2007년에 설립돼 올해로 11주년을 맞았다. 총 29개 단체가 가입해 있다.

"바라밀 행자와 복지 불국토 건립"

사회복지법인 동주 대표이사 정오 스님 5월 10일 취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평등복지사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탄생게를 읊으시며 하늘 아래와 땅 위 나 홀로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 개인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존귀함을 밝히신 겁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복지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주 대표이사로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5월 10일 장안사 설법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오 스님은 앞으로의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이날 동주는 설립 20주년 기념식도 함께 봉행했다.

정오 스님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세상, 복지 불국토를 위해 바라밀 행자들을 모집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동주는 108후원회, 33후원회, 특별후원회로 나눠 '향기로운 인연, 향기로운 동행' 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오 스님은 후원회 구성에 대해 "복지는 바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복지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일은 결국 나의 마음을 보람되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복 터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법인 동주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세계일화, 부처님 세상 만들기' 라는 목표 아래 1999년 벽파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됐다. 벽파 스님은 정오 스님의 은사다. 동주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및 장애인복지 등을 담당하며 부산연제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동주의 집(학대피해아동쉼터), 부산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오 스님은 "지혜와 자비로 하나 돼 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실천과제로 △여래장사상을 통한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육바라밀 수행을 통한 법인 역량강화 △복지공동체를 위한 연구 및 개발 등을 꼽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원효성사 가르침 되새기다

경주 분황사, 1333주기 원효성사 제향대재



경주 불국사 말사 분황사(주지 현광)는 5월 3일 경내에서 1333주기 원효성사 제향대재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주지 종우 스님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현광 스님은 "원효성사의 일심사상, 화쟁사상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살겠다"며 "사부대중은 성사님의 가피로 성불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산대첩 불 밝힌 연등"

통영불교연합회, 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



통영불교연합회(회장 종묵)는 5월 7일 한산대첩광장에서 봉축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제등행렬로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행사에는 회장 종묵 스님과 묵원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아울러 통영불교연합회는 이명규 통영부시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어르신 만수무강 하세요"

부산 효심사 무료급식소, 어버이날 선물 증정



부산 효심사(주지 효문)는 5월 8일 효심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에게 손수레 150개를 기증했다. 손수레는 효심사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조광심 불자가 희사한 것으로 주지 효문 스님의 나눔 활동에 함께 동참하고자 기부했다. 조광심 불자는 효심사 무료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발 및 화장품 등을 꾸준히 나누며 보시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본사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방송국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45번지 예림빌딩 606호
전화 : 1577-1016(방송국) 1670-2010 팩스 : 054-571-7498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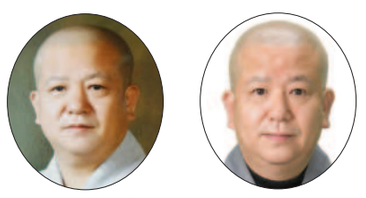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자기본성 바로 보는 것이 참선 · 명상”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는 4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이것이 수행이다’를 개최한다. 한국 선승과 심리의학 전문가, 명상 고수들이 강의에 나선다.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안반선(호흡명상) △선과 융합한 심리치료 △선문화를 통한 불교전법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불교수행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된다. 4월 12일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과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법문에 이어 4월 27일 진행된 참선지도자협회 간화선연구원장 정과 스님의 법문을 소개한다. 정리=박재완 기자



4월 27일 강의

“너의 마지막까지 수행하라”

정과 스님(참선지도자협회 간화선연구원장)



경북 문경에 명상마을이라는 것이 들어섭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준비위원회 일로 모임에 나가면서 ‘명상’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거기(명상마을)에 순수한 간화선 수행공동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내후년쯤에 정식으로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름도 ‘국제선센터’로 정해져 있었고, 수행프로그램도 간화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명상마을’로 바뀌었고, 수행프로그램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강남에만도 ‘명상’이라는 간판이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달 전에 동국대 정각원에 강의하러 갔다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거기에 가면 편안함을 얻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500개가 넘는 명상센터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인데 문경 명상마을에서 간화선을 해도 되겠는가. 우리 같은 출가수행자가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행과정인데, 그래도 저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면 또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고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명상마을을 찾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수행법을 일방적으로 내밀고 수행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강의(명상)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상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분들과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그분들에게 배우고, 성과가 입증된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상과 간화선을 융합해서 양쪽의 장점들을 뽑아내 일반인들이 수행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관련 모임에 갔다가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책은 티베트 스님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쉼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좌선명상’입니다. 우선 앉는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앉는 자세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형이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앉은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좌선명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산스크리트어의 ‘옴’, ‘아’, ‘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옴’은 머리의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고, ‘아’는 목의 차크라, ‘훔’은 가슴의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발음들을 하면서 차크라와 연결되거나 열어가면서 수행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차크라’라는 것은 몸에 있는 에너지가 고여 있는 곳, 또는 ‘근원’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7개쯤의 차크라가 있다고 합니다.

선악, 시비 벗어난 마음 도달
佛法의 공성은 허무주의와 달라
쉼이 수행의 처음이자 마지막

△두 번째는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사마타수행’인데요.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해서 고요하게 하는 명상입니다. 집중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요. 호흡, 불상, 관세음보살상을 대상으로 집중해도 됩니다.

△세 번째 명상은 ‘다듬어진 기본좌선명상’입니다. 여기서는 명료함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요함이 더 깊어진 단계입니다. 그동안의 거칠고 들뜬 마음이 한결 더 평온해지는 겁니다. 일념집중이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반복과정에서 점점 깊어져 가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명상은 ‘통찰명상’,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위빠사나수행’입니다. 통찰, 명확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본다는 것일까요? 자기 내면의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어려운 말입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내면과 본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면’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수행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본성을 보는 것. 다른 말이 아니라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특히 불교(불교수행)는 온전히 이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래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에 이끌려 이것저것 생각하고 행동하느라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보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식한다’입니다. 조금씩이나마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 공부에 대해서 믿음도 생겨나고 공부하는 재미도 생기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빨리 떨치기 위해서는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단, 제대로 된 지도자 밑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참불선원을 활용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빠사나수행 단계에서는 초월의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초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초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은 고요함, 청정함, 편안함, 광활함 등을 느낄 때를 ‘초월’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을 경험하는 이때쯤에는 ‘공성’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공성이라는 것도 역시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의 집합일 뿐, 그 어느 것도 독자적인 실체는 없다는 것, 그것이 공성의 정의입니다.

책의 저자인 티베트 스님은 비유를 통해 다시 공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경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니스 공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라켓이 있어야 하고 선수가 있어야 하고, 경기장, 관중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테니스 경기가 성립되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공성의 의미라는 겁니다. 테니스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 섬유, 접착제, 공의 공기 등이 합쳐졌을 때 테니스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성입니다. 처음서부터 테니스공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테니스 경기나 테니스공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수행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토록 놓지 못하고 있는 ‘나’도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삶의 질이 가벼워집니다. 깊이 본 사람은 엄청 밝아지는 것이고, 더 깊이 보고 끝까지 다 열어서 본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자유, 깨달음, 내면 본성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수행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되는 것은 더욱 아니지만 자기 성품을 본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이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조금씩은 벗겨져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자기 본성을 열어보고 깨닫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승속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재가자이지만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앞서 말한 ‘돈오(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를 이렇게 말합니다. ‘눈사태’ 같은 것. 눈사태는 외형상 아무런 징후 없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눈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돈오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안에서 작용하다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순간에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부처님 가르침을 잃지 마세요.

△다섯 번째 명상입니다. ‘열린 기쁜 명상’입니다. 이때쯤 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데, 편안하고 익숙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경험이 오면 직감적으로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다’고 표현한 것은 ‘나는 여기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자신이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멀리 떠나있거나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온 것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통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면 우리는 늘 그곳에 있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이 ‘집에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구나’가 아니고 ‘늘 집에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위의 말들을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공성의 의미는 절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허무주의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삶을 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편안해집니다. 시비와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곧 ‘쉰다’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불교수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정한 마음명상’입니다. ‘청정한 마음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청정한 것을 바라거나 잡으려 하지도 않고, 청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때쯤 되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들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들에서 오는 불안, 그런 것들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두의 바람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각을 제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올라오는 생각들을 지켜볼 뿐입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www.smilebangsu.co.kr NAVER 스마일방수 검색

지긋지긋한 방수공사
완·벽·시·공

원각사 정대스님이 적극 추천





주택/아파트/빌라/공장 등 건물바닥/벽체 방수 전문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자부심

- 비 새는 곳 100% 방수 시공 전문
- APT, 주택, 거실, 방, 베란다, 천정, 크랙, 누수 전문 방수 공사
-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및 실내 에폭시 방수 전문
- 폴리 그라우팅(인잭션 방수)

스마일방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23번지

시공문의 051)754-0469 · 010-8534-9197

부산일보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제 22403호 19

현장서 쌓은 방수 시공 기술력 ‘국내1인자’ 자부



스마일방수의 오상순 사장은 “하자보수의 핵심은 신용과 성실”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수영구 스마일방수는 20년간 방수 분야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한 분야에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술력이다. 현장에서 쌓아 올린 시공 노하우가 경쟁력인 셈이다.

스마일방수 오상순(60) 사장은 “20년 현장을 누볐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웬만하면 누수 지점이 어딘지 감이 온다. 건축물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면 누수 시나리오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는 경험이 쌓인 결과다”라고 말했다.

2000년 2월 스마일방수를 창업한 오사장은 창업 전에 대우건설 A/S팀 등에서 일하며, 현장의 기술력을 쌓았다.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가 아파트 누수를 잡는 방수 기술이었다고 한다.

직접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오 사장은 “수요는 무한한데, 이때만 해도 방수분야에 정통한 기술자가 없었다. 나만의 기술을 시장에 보여주고 평가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창업으로 바빠졌지만,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오 사장은 자평하고 있다. 실수 없는 방수작업 뒤 의뢰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보람이 크다고 한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방수 분야 기술 하나만은 ‘국내 제1인자’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스마일방수 고객 대부분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오 사장은 금전적인 문제보다 완벽한 시공을 중요시하는 경영철학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방수전문 시공만을 고집하며, 한 분야를 파고들어 노하우를 쌓은 것도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첨가약제와 자재는 특별한 것을 사용하고,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 방수시공이 실패할 때는 비용을 안 받거나 전액 환불해준다.

스마일방수는 주택, 아파트, 빌라,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을 시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공 때에는 폴리그라우팅인젝션 기법과 ‘WS4000 1액형’ 지수발포약제를 사용한다. 벽체와 천장 균열보수 및 외벽 방수는 그라우팅기법, 옥상 방수는 우레탄시공(도포), 실내주차장과 공장 바닥은 에폭시 기법으로 시공한다.

또 통상 평당 10만 원짜리 옥상 우레탄 시공엔 하도·중도·상도의 도포를 하지만, 스마일방수는 반드시 4차례의 도포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도포 작업엔 햇빛 방지용 탑코팅제를 반드시 발라줘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오 사장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꼼수는 부리지 않는다”며 “신용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백상 기자

‘상구보리’ 후엔 중생 속으로…



新 불교사자성어

⑰ 입전수수(入廛垂手)

‘입전수수(入廛垂手)’는 ‘번잡한 시장(市場) 속으로 들어가서 손을 내밀다’는 뜻이다.

중국 선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는 그 깨달음의 세계에 안주하지 말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로서, 더 쉽게 풀이하면 ‘중생이 사는 도심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다.

‘전(廛)’은 시장을 가리킨다. ‘입전수수(入廛垂手)’는 ‘십우도(十牛圖)’의 마지막 열 번째 그림의 제목, 즉 화제(畫題)이다.

‘십우도(十牛圖)’란 선불교에서 수행과정, 오도과정을 그림, 회화로 나타낸 책이다.

10장(10폭)으로 된 ‘소를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소는 탐 · 진 · 치(貪瞋痴)에 목숨을 심각하게 걸고 있는 인간, 즉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상징한다.

‘소(마음)를 찾는 그림’이라고 하여 ‘찾을 심(尋)’자를 써서 ‘심우도(尋牛圖)’라고도 하는데, 선미술(zen art)의 극치, 선화(禪畵)를 대표하는 그림이기도 하다. 사찰에 가면 법당 벽화에도 많이 그려져 있다.

심우도(십우도)는 선수행의 시작에서부터, 수행 단계, 그리고 목적지인 깨달음을 이룬 이후까지 과정을 10장의 그림으로 묘사한 것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이므로 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 깨달을 수 있다.

선 수행, 참선수행이란 탐욕, 증오, 어리석음의 삼독, 이성에 대한 욕망, 명예, 돈, 출세 등의 번뇌 망상의 늪과 풀밭을 인생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집착,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마음의 실체를 찾는 것이다. 불성, 청정한 마음, 진여 본심을 찾는 것이 선수행이다.

수덕사에 가면 ‘심우당(尋牛堂)’이라는 건물이 있다. 선방인데, 심우당을 선방 건물 명칭으로 사용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만해 한용운은 성북동에 있는 자신의 거처를 ‘심우장(尋牛莊)’이라고 했다. 역시 ‘소를 찾는 곳’이라는 뜻, 마음을 닦는다는 뜻이다.

‘소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불교에서 ‘소(牛)’는 어리석음, 우치(愚痴)를 가리킨다.

심우도에서 ‘우(牛)’도 마찬가지이다.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 아마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미련스럽게 일만 하기 때문이다.

‘입전수수’ 십우도 열 번째 화제

수행의 궁극은 중생 교화

오늘날 소는 경운기 덕분에 밭을 가는 일을 하지 않지만, 30년 전만해도 봄이 되면 하루 종일 밭을 갈았다. 소가 없는 집은 남의 소를 빌리거나 돈을 주고 사서 갈았다.

소의 눈을 쳐다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밭을 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어쩌다 소로 태어나서 하루 종일 일만 하게 되었을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쩌다 중생으로 태어나서 평생 돈만 벌다가 죽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참선한다고 시주의 은혜를 입고서도 수행을 잘못해 깨닫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소가 된다고 한다. 소가 되어서 시주의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다.

‘십우도(심우도)’는 본래 청정한 마음을 찾는 선 수행의 과정을 잃어버린 소(牛)를 찾는 과정으로 묘사한 선화(禪畵)인데, 곽암(廓庵) 선사의 심우도와 보명(普明)의 심우도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보명선사의 심우도 보다는 곽암선사의 심우도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심우도는 오도(悟道)의 세계를 절제된 언어 문자와 그림(회화)을 통하여 표현한 최고의 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마지막 열 번째 장면, 즉 결론 부분이 ‘입전수수(入廛垂手)’이다.

선 수행의 목적은 무언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룬 후에는 산에 있지 말고 도심 속, 지저분하고 복잡다단한 시장 속,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영가와 육조에게 일척안 내준 뜻은?

〈一隻眼, 한 쪽 눈〉



격절록 강설

⑰ 제 5칙 영가요석(永嘉遶錫) 2

[評唱 2]

永嘉既至曹溪 見六祖坐次 持錫遶繩牀三币 振錫一下 卓然而立 六祖云 “夫沙門具三千威儀 八萬細行 大德從何方來生大我慢” 永嘉也好便道 “生死事大 無常迅速” 六祖本要抛箇鉤釣永嘉 却倒被永嘉釣將去. 兩家只管打葛藤 一對一問千古萬古 悉皆如此. 末後六祖道 “如是如是” 永嘉便行. 祖云 “少留一宿” 故號為一宿覺. 名玄覺 號真覺.

영가(永嘉)가 조계에 이르러 육조(六祖)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석장(錫)을 들고 승상(繩牀)을 세 번 돌고 석장을 한 번 떨치고 바로 우뚝 섰다.

6조가 말했다.

“무릇 사문은 삼천 가지 위의와 팔만 가지 세행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대아만을 내는가?”

영가가 바로 말했다.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합니다.”

육조는 본래 갈고리 하나를 던져 영가를 낚으려 했던 것인데, 도리어 영가의 갈고리에 걸려들었다.

두 대사는 단지 말(葛藤)만 했을 뿐인데,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한 것(一對一問)이 천고만고에 모두 다 이와 같았다.

끝에 가서 육조가 “그렇지, 그렇지!”라고 하자 영가가 바로 가버렸는데, 육조가 “하룻밤 묵고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숙각(一宿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법명은 현각(玄覺)이고, 호(號)는 진각(真覺)이다.

雪竇拈古有大手脚 更不引問答 直引他初見六祖語 雪竇拈弄 永嘉道 “生死事大無常迅速” 且得沒交涉. 雪竇教永嘉下喝免見後人指注. 且道 明什麼邊事. 這一喝似箇什麼. 似置一寶珠向面前 若是有錢人便買將去 當時屬你也.

설두는 염고(拈古)에 대단한 솜씨가 있었기에 다시 문답을 인용하지 않고 처음에 육조가 한 말을 보고 바로 끌어다가 설두가 염롱(拈弄)한 것이지, 영가가 말하기를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합니다”고 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설두가 만약 영가로 하여금 “할(喝)!”을 하게 하였더라면 뒷사람들이 어설프게 주석과 주해를 다는 것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말해보라! 어떤 경계의 일(什麼邊事)을 밝힌 것인가? 이 일할(一喝)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하나의 보배 구슬(一寶珠)을 면전에 던져둔 것과 같으니, 만약 어떤 돈 있는 이(有錢人)가 바로 사간다면 그때 그에게 부촉할 것이다.

宗師家拈古 有出羣處. 却再舉六祖道等遶繩牀三币 振錫一下 卓然而立 好向他道 未到曹溪 已與你三十棒了也. 雪竇前頭與永嘉出一隻眼 這裏與六祖出一隻眼. 且道 雪竇意作麼生.

종사들의 염고에는 뭇사람들을 뛰어넘는 곳(出羣處)이 있다. 그래서 재차 도리어 승상을 세 번 돌고 석장을 한 번 떨치고 우뚝 섰을 때 육조가 한 말을 거론하고, (육조를 대신해서) 그(영가)에게 말하기를 “조계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대에게 삼십 방을 치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설두는 앞에서는 영가에게 일척안(一隻眼, 한 쪽 눈)을 내주었고, 여기서는 6조에게 일척안을 내주었다.

자, 말해보라! 설두의 뜻이 무엇인가?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⑰ 믿음 편 17

불심으로 나라 지키는 이유

학창시절 선배가 후배의 기강을 잡을 목적으로 종종 하는 말이 있었다. 선배는 하느님이나 부처님과 동기동창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복해서 따라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선배의 말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들 일상에서도 복종의 논리적 근거를 교주에서 찾고 있으니, 종교의 영향력이 크긴 크다는 생각이다.

중국불교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바로 북조(北朝)시대에 유행한 왕즉불(王卽佛), 왕이 곧 붓다라는 신앙이다. 이는 왕이 곧 붓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임금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왕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 불상이나 불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한 것이다.

불교에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호국신앙(護國信仰)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호국의 주체인 임금과 붓다는 동일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임금을 지키는 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호국신앙은 나라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전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종교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호국신앙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적의 침입이 많았던 신라 지역에 호국신앙이 널리 유행하였다. 북조에서 유학하다 귀국한 원광(圓光)은 화랑의 지도이념으로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제시하여 국가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자장(慈藏)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황룡사 9층목탑을 지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호국신앙의 모습은 백고좌회(百高座會)와 팔관회(八關會)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고좌회는 백 명의 고승을 초청해 국가의 액운을 물리치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이며, 팔관회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명복을 비는 법회였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17년에 걸쳐서 고려대장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호국신앙의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임진왜란 때 휴정과 유정을 비롯한 수많은 승려들은 왜군을 물리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한용운, 백용성 등의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일도 빼놓을 수 없는 호국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호국신앙을 이야기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킨다(護國)’고 할 때, ‘나라’에는 내가 살고 있는 조국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땅(佛國土)이자 정토(淨土)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곳을 더럽힌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고좌회와 팔관회, 고려대장경 제작,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활동 등은 모두 정토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었다.

호국신앙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곧 정토라는 현실정토(現實淨土) 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정토는 죽은 다음에 태어나거나, 아주 먼 미래에 오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공간을 청정하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의 호국신앙이 왕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북조시대의 정치적 호국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답사를 다니다 보면 호국사찰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도량을 만나게 된다. 대부분 임진왜란 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곳이다. 호국신앙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왔다.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거나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전국의 사찰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도가 봉행된다. 잊지 말기로 하자.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정토라는 것을, 그리고 정토는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의 땅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급여(개인적으로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해라는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단위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해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2019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교인

- 2018년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종교인
- 2018년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

※ 종교인 과세 관련 무료 동영상 강의
- 유튜브 검색창에 “박성욱 세무사”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과세에 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강** 기부금영수증 업무처리, **2강** 신고납부일정, **3강** 종교인소득, **4강** : 가산세, **5강** 종교인소득 절세와 관리요령

※ 동영상 강의자료가 필요한 종단 및 사찰에 무료 배포하겠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전화 : 051-996-0308 박성욱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지혜인(제6기) 명상지도사

자격증과정(민간자격사등록)

- **2급연수** : **6월1일(토),8일(토)** 10~17시(12시간) +자가학습(부교재/DVD)18시간(총30시간)
- **1급연수** : **6월15일(토), 22일~23일(토/일)**합숙워크숍(현장18시간)+자가학습부교재등12시간(총30시간)

■ **담당교수** : **손기원** / 철학박사, 인문학 명강사
■ **장 소** : **사다헌 강남교육장**(교육장 및 명상실 완비)
■ **참가대상** : 전통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명상지도사가 되어 명상을 지도하고자 하는 분
■ **모집인원** : 15명 내외(서류전형으로 합격자 선발)

※ 제29기 여름 청소년 지혜인 집중력 캠프 예약 접수중

☎ 문의 : 031-283-8287, 010-3734-5418

지혜경영연구소



참회진언 타올

40×80cm / 160g / 30수 / **5,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절방석을 덮는 참회진언 大타올도 있습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 043)644-1102

미얀마 불교 이끌 사미 학교에 보시하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⑨ 빠옥 총림을 향해

며칠 전부터 원래 목표였던 몰라민의 빠옥 선원을 위해 마하시를 떠날 준비를 하였다. 먼저 마하시 선원에서 출간된 법문자료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가능한 모두 구입하였다. 또한 선원의 발전을 위해 보시를 하였다. 물론 보시는 자율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오래 머물며 마하시의 시설과 제공되는 음식을 누린 것이다.

보통 이곳에서 보시는 대중공양이다. 대중들이 같이할 수 있는 공양비용을 내면 공양청에서 알아서 특별한 공양을 준비해 준다. 많은 미얀마 보시자들이 공양을 올리고 공양청 입구에서 합장하며 대중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아 왔다. 그러면 요기들은 공양청 입구에 들어서며 보시자에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며 입장한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보시를 생각해 본다. 외국인 수행처의 감독 스님께 어떠한 보시를 하면 좋겠는가를 물으니 마찬가지로 대중공양을 권한다. 다시 다른 보시방법이 없겠는가를 물으니 선원에 숙소가 부족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불사를 하는데 보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점심 공양 후 감독 스님과 함께 마하시 선원의 고빠까(사찰운영회) 담당자를 만나 불사금을 전했다. 이곳에서는 불사금을 전하면 '보시금 증명서(Donation Certificate)' 를 발급해 준다. 그래서 미얀마 가정집을 가서 보면 보시금 증명서를 벽에 전시해 놓은 경우도 볼 수 있다. 무주상보시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보시 문화와는 다른 것 같다. 감독 스님이 기념사진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조금은 어색하게 느꼈으나 담당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해 보았다.

다음으로 마하시 선원 밖의 동자승 학교(Children Monastic School)에 보시하고 싶었다. 미얀마를 다니다 보면 여러 곳에서 10세 안팎의 밤색 승복을 입은 동자승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자승은 주로 고아나 미아 또는 생계가 어려워 위탁된 경우로 몇 십 명이 집단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미학교는 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이 모두 출가자이다.

오래 전인 11세기부터 있어 왔으며 불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와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미승은 장차 완전한 구족계 출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미얀마 종교국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1,597개의 사미학교에 약 6,000명의 교사와 약 2십6만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다.

늘 기웃거리며 보아왔던 동자승 학교는 마하시 선원에서 탁발하는 주요 동선에 있다. 물론 탁발을 따라다니며 보아왔던 것이다. 여기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선원 감독스님과 함께 갔다. 시장통 가까이 빈민촌처럼 보이는 곳에서 밤색 승복을 입은 동자승 60여 명 정도가 올망졸망 모여 살고 있다.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도 모두 비구 스님들이다.



빠옥 총림으로 떠나기 전 마하시 선원에 보시했다. 미얀마는 보시를 하면 '보시금 증명서' 를 발급해준다. 미얀마 가정에도 증명서를 자랑스럽게 걸어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무주상보시를 강조하는 한국 문화와는 다른 점이다.

2층 건물의 낡은 학교는 교실과 숙소 등이 함께 있다. 대략 6~7세에서 10세에 이르는 동자승이 귀여워 보였다. 지나가다 길가의 창문을 통해 보면 줄지어 바닥에 앉아 교사 스님 지도하에 칠판을 보며 공부하고 있다. 귀여워하는 나의 표정 때문이었는지 교장 스님이 동자승을 한번 들어 보라 한다. 들어 올리며 순간 너무나도 가뿐한 것에 깜짝 놀랐다. 보기와 다르게 가볍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또래의 어린이와의 체중과 너무나 달랐다. 마치 지푸라기 볏짚이라도 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직도 그러한 느낌이 내 손 끝에 남아 있을 정도이다. 교장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기부금을 전했다. 마하시 선원과 이곳에 각각 300달러, 총 600달러를 보시하였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금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게 하였다. 교장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선원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후 빈대인지 벼룩이 나에게 옮겨왔는지 온 몸에 빈대(혹은 벼룩)에 물려 며칠 동안 고역을 치루었다. 그러면서 6세나 7세의 동자승들은 얼마나 힘들겠는지를 생각했다. 후일 누구에게 물으니 미얀마 동자승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왜 그러한지를 물으니 소 오줌을 발효시켜 만든 진기약(陳棄藥)을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기약을 먹으면 벼룩이나 빈대에 물리지 않는다고 한다. 진기약은 부란약(腐爛藥)이라고도 한역되었는데 일종의 의약(醫藥)이다.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자가 약으로 사용했다. 미얀마는 수행처에서 진기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나중에 빠옥 총림에서도 직접 볼 수 있었다.

빠옥 가기 전 마하시에 보시
동자승 학교에도 기부금 전달
두 기관 모두 증명서 발급해
무주상보시 강조 韓과는 달라

2012년 1월 22일, 오늘은 마하시 선원에 입방한 지 49일째 날이기도 하다. 계획에 따라 빠옥 총림으로 떠나는 날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에서 떠나올 때 빠옥 총림을 최종 목적지로 삼았다. 하지만 마하시 선원은 양곤에 위치한 데다 가장 유명한 오래된 선원이기에 답사의 필수 코스라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친 위빠사나 수행처이기도 하다. 마하시는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 수행이 중심이다. 위빠사나 입문에 있어 호흡과 신체적 행위의 알아차림에 중심이 놓여있다. 그렇다고 수념처나 심념처 그리고 법념처가 간과되거나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수행의 입문 그리고 기초와 근본을 확실하게 훈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기초만 잘 익혀도 저절로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전에 기록된 부처님 말씀처럼 이 같은 신념처만 꾸준히 잘 닦더라도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이러한 기본이나 근본적인 행법조차 건너뛰거나 간과하면서, 하수의 행법처럼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수행법을 꾸짖고 자신의 행법만이 최상승이라 노래하기도 한다.

빠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다. 필자는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문제에 있어 '지관차제(止觀次第)' 를 줄곧 주장했고, 학계의 논쟁으로 확장됐다. 왜냐하면 경전에서 지관차제만이 아니라 관이 먼저이고 지가 나중으로 나오기도 하고, 처음부터 지관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기본은 지관차제 이후의 경우이지 처음부터 누구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전 자구를 기계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학술토론회에서 중앙승가대 교수였던 미산 스님은 미얀마의 빠옥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고 하였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하시 선원은 어느 정도 알았지만 빠옥 총림은 잘 알지 못했다. 이후부터 빠옥 총림을 직접 답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며칠 전에 빠옥 총림이 있는 몰라민행 버스표를 예매해 두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 전날 오랫동안의 인연인 옷따라 스님도 만나 양곤을 떠난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마하시 선원에서 함께 정진했던 요기들에게도 떠난다고 알렸다. 마침 점심 공양 후 빨래를 하기 위해 다니다가 선원 로비에 있는 한국 스님들을 만났다. 한 스님이 나에게 "떠날 준비를 하느냐"고 묻는다. 그래서 이미 자띨라 선원장 스님에 이어 감독 스님과 관리 모두에게도 인사를 드렸다고 알렸다. 그리고 저녁 7시에 이곳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어느새 지나가다 이를 들은 한국 노스님이 다가와 "갈 때는 소리 없이 가라"고 했다. 스님은 다시 "떠날 때는 인사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바로 자리를 떴다. 바로 노스님이 무슨 충고를 한 것인지를 알았다. 즉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이 들뜨기 쉬우니 말없이 조용히 떠나야한다는 것이다.

버스정류장에서 빠옥행 버스 출발시간은 밤 8시이다. 짐을 챙겨서 조용히 나온다. 버스를 타고 보니 에어컨 바람 방향 조절 장치가 고장 나 있어 가는 내내 에어컨 바람을 직통으로 맞았다. 출발을 기다리는 버스에 사미니 스님이 올라와 보시를 구한다. 있는 잔돈을 모두 드렸다. 버스는 예정 시간보다 약 5분 뒤에 출발했다. 버스 안은 삼성 TV에 한국 영화가 방영된다. 버스 안 출입구에는 미얀마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웅산 장군과 그의 딸인 수지의 사진이 붙어있다. 군사 독재정권인데도 반체제 수장의 사진이 어디든지 게재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 우리나라와 비교되었다.

밤새 달리던 버스는 다음 날 멈추었다. 알고 보니 밤 12시 전 중간에서 탑승했던 스님과 사미의 오후불식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스님들에게 여행 중이라도 12시 이전에 점심을 마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중간 휴게소에서 30분 후 점심을 들고 떠난다한다. 식사를 마친 후 버스의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청년이 묻는다. 그는 먼저 나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악수를 청했다. 버스 안에서 외국인 같은 사람이 나 혼자이니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이 발동하고 궁금했을 것이다.

인도나 미얀마에서 지내다보면 이렇게 주눅 들지 않은 천진한 품성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의 무게에 눌려 자신을 표현하는 데 눈치보고 조심한다. 괜한 것에도 억눌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며 벌벌 떠는 사람도 본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도 관심도 조심하고 억압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청년은 다른 미얀마 사람보다 영어 발음도 명료하고 자신의 의사를 주저하지 않고 잘 표현하였다. 이런저런 이야기 과정에서 그의 나이는 19살(한국나이 21살)이고 시골에서 사는데 영어교사로 절에 가서 사미들을 가르치기 위해 스님을 따라간다고 한다. 옆에는 주지 스님이 앉아있다.

미얀마를 비롯한 상좌불교권 나라에서는 운전석 뒤쪽이 상석이라 항상 이 좌석에 스님들을 앉게 한다. 다시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어 몰라민의 빠옥에 간다고 하니 뜻밖이라는 식으로 불교도냐고 묻는다. 그는 나의 나이도 궁금해 했다. 그러면서 나의 아들이 너보다 한두 살 적은 나이라 하니 놀라워한다. 준비해 간 선물용 샤프연필을 주지 스님과 청년에게 하나씩 선물해 드렸다. 한참을 지나다 자는 그의 모습을 보니 왠지 파리하고 여리게 여겨진다. 아들 생각이 난다. 그가 깨어나자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나는 갑자기 주지 스님에게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에게 통역을 부탁해 주지 스님에게 "지금 초대해가는 영어 선생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 자신의 미래가 있다.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많이 주셔야합니다"라고 서슴지 않고 무례하게 월권의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나의 겸연쩍은 표정에서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웃었던지, 나와 주지 스님, 젊은 영어 선생 모두가 동시에 같이 웃었다. 주지 스님이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중간에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서 내리는 스님과 청년 영어 교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보는듯한 생각이 들었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TOYLAND
사랑스러운 인형과 선물이 가득한곳! 토이랜드
사랑스런 인형과 선물이 가득한 곳!
토 이 랜 드
대표 황정성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87
전화 : 031) 424-2976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Mini girl

미니멀리즘과 불교 사상의 만남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⑨ 카푸어와 용수의 공(空)



〈고성소에로의 하강 Descent into Limbo〉, 1992 / 〈To Reflect an Intimate Part of the Red〉, 1981 / 〈무제 Untitled〉, 1990 / 아니쉬 카푸어 Anish Kapoor 사진제공=김원숙 미술학자

작품 〈고성소(古聖所)에로의 하강 Descent into Limbo〉 앞에 서면 시각적으로, 도상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일은 무의미해진다. 평평하고 견고한 전시실의 바닥에 알 수 없는 둥글고 검은 구멍이 놓여 있을 뿐, 그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실제 이 작품의 안쪽 깊이는 2.5m라고 하지만 내부는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검은 도료로 칠해져 있어 보는 이들은 그 깊이를 전혀 짐작할 수가 없다. 최근에 포르투갈의 한 전시회에서는 이 작품을 단순히 검은 색을 칠한 원으로 오인한 관람객이 발을 딛다가 그 속으로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카푸어의 최근 작품에는 이 깊고 어두운 검은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노 공학의 산물인 반타블랙(Vantablack)이라는 특수한 도료를 사용한다고 한다. 영국의 한 회사에서 개발된 이 도료는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현존하는 가장 검은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카푸어는 이에 대해 예술적 용도에 한정된 독점사용권 계약을 맺어 미술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카톨릭 교리에 바탕을 둔 'Limbo'는 라틴어 'Limbus'에서 유래한 어휘로서 지옥의 언저리, 또는 지옥도 천국도 그 어떤 곳으로, 원죄를 지닌 자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을 때 가는 곳을 의미한다. 고성소에로의 하강이라는 모티프는 중세 후기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카푸어는 독특한 자기만의 조형 언어로 이 주제를 재해석하여 설치 작품으로 만들었다.

"형태가 단순하다고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단순한 것은 아니다. 단순한 것일수록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카푸어는 말했다. 이 암흑, 비어 있음, 무(無) 또는 공(空)은 사물의 존재 양상이 단순함의 극한으로 수렴할 때, 비로소 그 자신의 본질을 열어 보이는 아이러니이며 역설적인 오브제이다.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파스칼의 말처럼 이 절대적인 암흑, 가늠할 수 없는 깊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숭고의 정서를 불러 일으킨다.

카푸어 자신은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는 "내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나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려고 무척 애썼지만, 유명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아닌 비평가들이 내 작품을 오히려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다"며 해학적인 언급을 남겼다. 물론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이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유한 미적 체험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작가의 원래 제작 의도에 대한 궁금증 역시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는 인도 뭄바이에서 유대계 이주민인 어머니와 인도 펀잡 지역 출신 힌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영국의 근대적 교육체계를 모방하여 인도의 발전을 도모했던 둔 스쿨(Doon School)에서 17세까지 교육을 받던 그는 1971년 그의 두 형제 중 한 사람과 이스라엘로 떠나 키부츠에서 생활했다. 당초 전기전자공학을 공부했지만, 수학에 흥미가 없음을 깨닫고 6개월 만에 그만 둔 그는 이내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1973년 영국으로 떠나 런던의 혼지 예술 대학 (Hornsey College of Art)과 첼시 미술 디자인 학교(Chelsea School of Art and Design)에서 수학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의 롤 모델인 폴 니구(Paul Neagu)를 만나면서 비로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카푸어는 작품 활동 초기에는 주로 화강석, 석회석과 같은 암석, 그리고 안료 분말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에게 작가로서의 명성을 가져다 준 최초의 작업은 〈1000개의 이름들〉이라는 연작 시리즈이다.

안료 분말을 고형화시켜 일정한 형상을 만들고 이들을 바닥 또는 벽면에 설치한 이 작품들은 소재가 지닌 강렬한 원색, 그리고 추상성과 구체성의 적절한 대비와 조화를 이룬 독특한 조형적 질서로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이 오브제들 중 일부는 예리하고 기하학적인 삼각뿔 형태를 갖추고 있기도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보는 산과 같은 구체적 자연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곡선적인 형태를 지닌 오브제들도 함께 배치되어 있다. 어떤 것들은 마치 불두(佛頭)의 형상, 부도탑 또는 만개하기 직전의 연꽃 봉오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불교 미술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사찰 내부의 장식이나 사리탑 또는 동남아, 인도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적 조형물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비록, 카푸어 자신은 인도 출생이라는 것이 자신의 예술 세계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 굳이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인도와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작품세계는 미니멀리즘과 추상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미술의 모더니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적인 모티프를 차용한다. 그러나 조형적으로, 작가의 내면을 지배하는 암시적 사상의 한 켠은 분명 힌두 문화의 영향을 은연 중에 드러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의 작업들 전반에는 작가가 태생적으로 체험한 성장기 경험의 편린이 엿보인다. 카푸어의 작품세계는 인도와 이스라엘의 경험 및 작품활동을 하며 보낸 서구사회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융화된 하이브리드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암흑'의 조형 질서 미술서 표현
구도에 '空'의 개념 적극적 활용

"이 안료 작품들을 만들 때, 내 머리에는 이 모든 개개의 것들이 서로에게서 나와서 형성된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포괄적인 이름, 즉 1000이라는 숫자가 무한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의미에서 '1000개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붙여 주기로 결정했다."

힌두교와 불교의 사상에서 만물은 제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 영겁을 두고 탄생과 사멸을 거듭하는 모든 것들, 1000개의 이름을 가진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개개 사물의 존재는 전체를 이루는 일부로서 생멸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카푸어의 설명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부처의 말씀을 연상케 한다.

소재의 측면에서 특이한 점은 저 덩어리 자체가 전부 안료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개 예술가는 감상자를 위한 시각 이미지를 제작할 때, 우선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 위에 색을 입힌 표면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과정이다. 그러나 카푸어의 〈1000개의 이름들〉시리즈는 색 그 자체가 곧 덩어리이며, 덩어리가 곧 색 그 자체인 기묘한 통합성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는 안료가 곧 색이며, 색 그 자체가 형상을 갖춘 오브제가 되어 질료와 형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상성의 극한으로 치닫는다.

서구적 논리 체계는 배중률에 근거한다. 즉 "A가 아닌 것은 A와 다르다"는 것이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고, 안과 밖 역시 다만 서로 다른 것일 뿐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도와 동양의 노장사상이나 힌두와 불교 철학에서는 만물을 합일된 존재로 여긴다. 안과 밖은 불가분의 것이며, 앞과 뒤 또한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전시공간 바닥 위에 놓여진 오묘한 빛을 내뿜는 강렬한 원색의 안료 덩어리들은 그 자체가 개별적 대상으로 제시되나, 본질적으로는 무한한 전체의 일부이다. 카푸어에게 이 오브제들은 비록 전시공간 바닥의 표면으로 인해 한정되나, 부분적으로 표면 아래 잠겨 들어 무한한 깊이를 가진 것으로 상징된다. 마치 바다에 잠긴 거대한 빙산처럼, 혹은 망망한 대양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숱한 작은 섬들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더욱 거대한 전체의 조그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카푸어의 작품 세계는 좀더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고성소에로의 하강〉이 바로 이 시기의 작품이다. 마치 "주행성에서 야행성에로의 전이"와도 같다고 한 평론가의 표현대로, 그 이전 작품들에 비해 이 시기의 카푸어의 작품들에서 눈부시게 밝은 원색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흑암의 어둠으로, 단단한 형상의 조형물들은 단지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소멸된다.

흔히 조형예술에서 조각 작품은 텅 비어 열린 공간을 점유하는 견고하고 닫힌 대상으로 인지된다. 예를 들어, 고대 〈빌렌도르프의 베누스〉부터 현대 작가들의 많은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소조나 조각에 있어서는 '무'의 공간에 '유'를 세우는 것이 기본적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카푸어는 빽빽하고 치밀하며 밝게 빛나는 피상적 현존의 질료 그 자체보다는, 그 틈새에서 빚어지는 어둡고 공허하고 무한한 깊이를 가진 빈 공간에 주목하도록 관객들을 이끈다.

특별히 카푸어의 공(空, Void) 시리즈는 가장 명료하게 자신의 예술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짙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세 개의 오목한 반구 형태가 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 〈무제〉(Untitled)를 설명하면서 그는 "공(空)은 아무 것도 없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간은 어둠에 대해서 본능적인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피로에 지친 인간은 또한 그러한 어둠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찾는다. 마치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태 속처럼, 어둠은 역설적으로 고뇌에 지친 인간의 영혼에게 주어지는 고요한 피난처이기도 하며,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신비한 공간이기도 하다.

만일 어둠에 닿아있지 않은 등불이
어둠을 물리친다면
여기 있는 등불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등불이 그 자체와
다른 것을 비춘다고 한다면
어둠도 또한 그 자체와
다른 것을 어둡게 할 것이다.

나가르주나(Nagarjuna, 龍樹)의 〈중론〉

어둠이 없이는 빛도 있을 수 없는데 어찌 등불이 자기를 비추고 남을 비춘다고 하겠는가? 어둠이 있으므로 빛이 있고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있는 것이지, 어둠과 독립적으로 자존하는 빛의 세계는 없다. 〈중론〉 전체를 관통하는 명제인 "무자성이므로 공하다(無自性故空)"는 모든 사물에는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고유한 본성이나 실체성이 없음, 즉 사물의 공성을 이른다. 대승불교의 철학적 기틀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받는 나가르주나는 공사상과 연기론을 중심으로 비실체론적 세계관을 설파한다. 나가르주나는 어떤 존재도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어떠한 존재도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일체는 공함으로 평등하며 이 공함을 여실히 보아야 한다고 전한다.

진리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보다는 꽃을 드는 하나의 몸짓으로 충분한 것처럼, 카푸어는 작품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 내려 하지 않는다. 작품이 단순할수록 그것이 전하는 의미는 더 깊어지고, 단순함이 극에 도달한 지점에서 공(空)을 만난다. 카푸어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와 비 존재의 경계선에 서 있음을 자각하도록 이끈다.

〈미술학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암세포의 자가 면역력이 돌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중·고등학교
능인학원 상 아 유 치 원

이 사 장 종화 도진
상아유치원장 정 인 애
능인중학교장 정 영 채
능인고등학교장 김 원 술
교 법 사 서정·문수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고등학교 053-235-4420 팩스 053-766-6115
중 학 교 053-232-9102 팩스 053-768-5119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군산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도 연

관음사 도천 동국사 종걸 상주사 도연 성흥사 송월
은적사 석초 보천사 의종 삼보사 법송 수도암 무진
염불사 행담 대명사 법인 정안사 정안 혜원사 혜등
흥천사 법희(무순)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서수면 함안로 57-29
Tel 063)453-7800



날짜 얽매여 가르침 잊지 말아야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⑨ 부처와 공자 탄신일에 대한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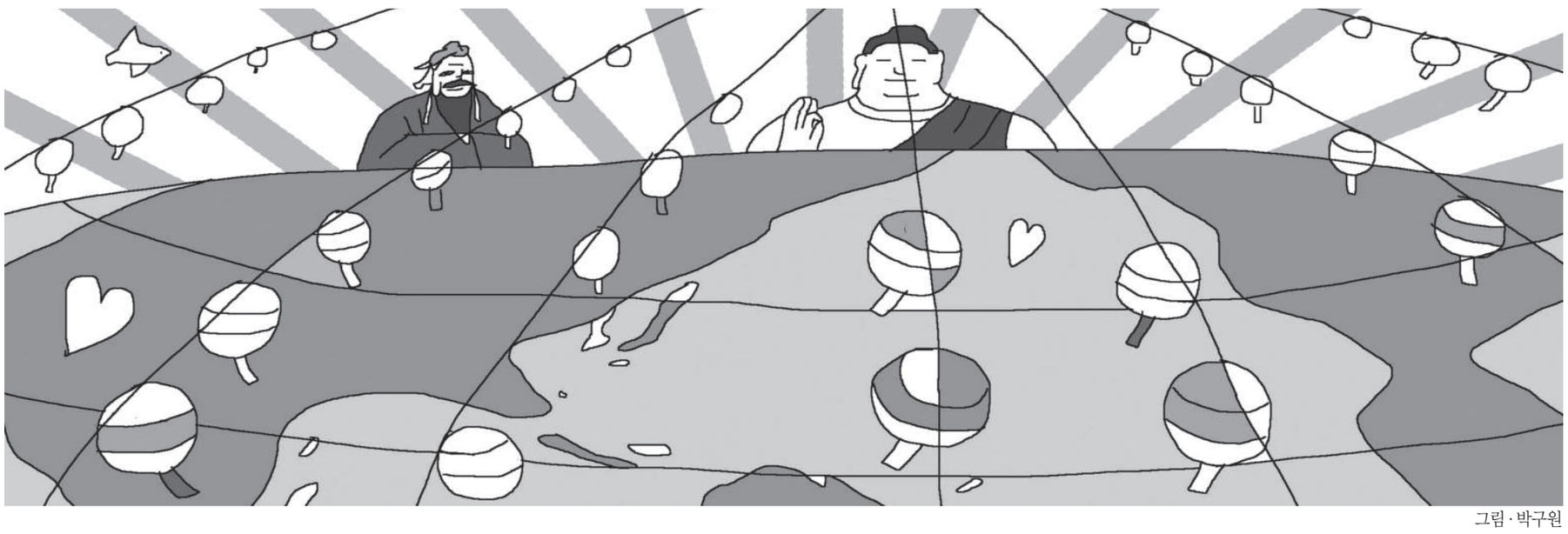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를 가도 가득하다

남다른 비경을 자랑하는 남해에는 유서 깊은 고찰(古刹)이 여러 군데 있다. 우리나라 삼대 관세음보살 성지의 하나로 알려진 보리암은 신라 신문왕 3년인 683년에 원효대사에 의해 터를 잡았다. 호구산에는 용문사가 있는데, 신라 애장왕 3년인 802년에 세워졌다. 망운산에 자리한 화방사는 신라 신문왕(재위, 681-692) 때 역시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화방사는 창건 당시에는 연죽사(煙竹寺)라 불렸다가 고려 중기 진각국사 혜심(慧諶, 1178-1234)이 중창한 뒤에는 영장사(靈藏寺)라 하였다. 그러다 조선 인조 3년인 1636년 계원(戒元)과 영철(靈哲) 두 스님이 현 위치로 옮기면서 화방사가 되었다

그 밖에도 골골마다 사찰을 품고 있어 불심 깊은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화방사를 자주 찾는다. 이 절 주지로 계신 승언 스님은 남해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지만, 무엇보다 남해가 불교 성지라는 데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 다들 알다시피 남해는 고려 중기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불력(佛力)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판각한 고려 팔만대장경의 얼이 숨 쉬는 고장이다. 그래서 남해에서는 지금 다양한 대장경 관련 기념사업이 한창이다. 뜻 있는 분들이 모여 '고려대장경 판각성지 보존회' 라는 모임을 꾸렸고, 승언 스님은 이 보존회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나도 회원으로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두 주 전쯤 몇몇 사람들과 함께 화방사를 가게 되었다. 주지 스님께서 급히 찾는다기에 부랴부랴 갔는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절 마당에 걸 연등의 괘대(掛臺)를 설치하니 도와달라는 말씀이셨다. 천 년 고찰임에도 막상 힘을 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었다. 뭐 별 거 아니네 싶어 팔을 걷어붙였는데, 막상 해 보니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꽤 굵은 쇠파이프를 이리저리 연결해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려니 주지 스님을 비롯한 장정 여섯이 오후 내내 달라붙어서야 겨우 마무리를 지었다. 게다가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 힘이 배나 들었다. (나는 떨어지는 파이프에 팔뚝을 맞아 피를 보는 부상까지 당했다.) 해마다 축일이 오면 화려하게 걸린 연등을 찬탄하며 구경만 했지 어떻게 걸렸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제야 축원을 담은 연등을 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는 명절이다. 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이라 부르다가 순 우리말로 고쳐 '부처님오신날' 이 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사월초파일(四月初八日)이라고도 부르는데, 부처님 생일이 음력으로 4월 8일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양력으로 5월 12일인데, 이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진다. 거리마다 연등이 걸리고 기념탑들이 길목을 장식한다. 화방사에서는 이 날 신도들을 모시고 노래자랑을 연다고 하는데, 나는 음치라 참가하지 못하니 퍽이나 유감이다.

그런데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생일로 기리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정도다. 동남아에서도 당연히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지만 날짜가 다르다고 한다. 대승불교권에서 정한 날짜와 소승불교(남방불교)의 날짜가 다른 것이다. 상좌부 불교권으로 통칭되는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웨삭(Vesak)이라 부르는데, 인도식 음력에서 두 번째 달인 와이사카(Vaisakha) 달을 부르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한다. 거기서는 부처님이 와이사카 달의 보름에 태어나고, 성불했으며, 열반했다고 전해진단다. 이 때문에 상좌부 불교계에서 웨삭은 부처님오신날이자 성도일이며 열반일이기도 하다. 상좌부 불교권의 웨삭일은 음력 4월 15일이라는데, 우리보다 한 주 늦는 듯하다.

부처님오신날은 언제였을까?

그런데 부처님오신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은 남방과 북방 불교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닌 모양이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음력 2월인지 4월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유명한 초의(艸衣, 1789-1866) 스님의 시문집인 〈초의시고(艸衣詩藁) 권2〉에 보면 자하 시랑의 '이월 팔일' 시에 삼가 화답함(奉和紫霞侍郎二月八日之作)이란 시가 실려 있다. 자하 시랑은 조선 후기 때의 시인 신위(申緯, 1769- 1847)를 말한다. 신위는 이 시에서 부처님의 탄신일은 음력 2월 8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의견을 7언의 장시로 써내려갔다. 이를 읽어본 초의 스님이 그 의견에 시로 대답했는데, 전편은 아래와 같다.

이월 팔일과 사월 팔일은
석가의 생일로 의견이 분분하네.
살펴보면 주나라 소왕 때에 그치지도 않고
무을과 하걸의 연대까지 올라간다네.
초나라 장왕 때와도 같다고 하는데
춘추는 원래 날짜가 틀리지 않는다네.
소왕이라 하는 것 근거가 뭔지 몰라도
갑오년 갑인년이라고 서로가 난리라네.
어떤 이는 입적한 날이지 생일은 아니라는데
원래 나함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
취령의 성인이 법인을 전하니
석주문자에서 현기가 새어 나왔네.
알려진 이야기가 모나고 치우쳐서
본래 뜻과 어긋나고 터무니없게 바뀌었구나.

대승 · 남방불교권 봉축일 달라
유교에서도 공자 탄신일 논란
가르침 앞에 날짜 구분 무의미

묘길상이 본래 만수리이고
무진의가 또한 아차말이라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등불이 부처를 돕나니
이월을 사월로 고쳐도 문제될 것 없다네.
그러나 우리 부처는 원래 태어남이 없으니
문을 나서 텅 빈 강물 보며 한껏 웃을 뿐이지.

二月八與四月八 釋迦生辰紛紛說
細考又不止周昭 上溯武乙竝夏桀
夜明還是莊王時 春秋元不差月日
不知昭王更何據 甲午甲寅復相
或云入道非生辰 本起那含詳記
鷲嶺聖人法印傳 石柱文字玄機泄
聲聞依滯方隅 離迦蘗轉恣訛脫
妙吉祥原曼殊利 無盡意乃阿差末
百千燈影攝牟尼 二月不妨作四月
然而我佛元無生 出門一笑空江闊

신위는 자신의 시에서 날짜를 따지는 데 착오가 생겨 2월이 4월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4월 8일을 부처의 생일을 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초의 스님은 반론을 제기해 4월 8일이 옳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부처님은 원래 태어남 자체가 없는 분인데 이를 두고 왈가왈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선승답게 부처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중시해야지 날짜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냐는 주장이었다.

여기에서 그 논란을 길게 설명할 짬은 없지만, 두 사람 사이의 논란이 팽팽하자 역시 당대 최고의 고증학자였던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도 〈이월 팔일이 부처의 탄신일이란 시에 대해 초의를 대신해 답하다(答二月八日作佛辰 代艸衲)〉란 시를 지어 초의 스님의 입장을 옹호했는데, 역시 차이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가지자고 말했다.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음인 듯도 하다.

공자의 탄신일도 논란꺼리?

생일에 대해 주장이 많은 것은 부처님만이 아니다. 공자의 생일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식적으로 공자는 노(魯)나라 양공(襄公) 22년(기원전 551년) 노나라 창평향(昌平鄕) 추읍(鄒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생일은 주력(周曆) 8월 27일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9월 28일이 된다. 성균관과 각지의 향교에서 음력 2월과 8월에 석전대제(釋奠大祭)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공자의 생일을 기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9월 28일이라는 날짜도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정해진 것은 아닌 듯하다.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보면 노나라 양공 22년에 태어났지 월일(月日)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떠나서 워낙 과거의 일이고, 당연히 기록도 전해지는 게 없거나 불확실해 공자의 생일뿐만 아니라 생애와 가족사에 대해서도 굳게 확신하거나 줄기차게 의심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로 뒤섞여 있다.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면 죽어서도 이렇게 피곤한가 보다.

그런데 2004년 중국 상하이 자오통(交通)대학에 근무하는 장샤오위엔 교수가 현대 천문학을 이용해 공자의 탄신일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 교수는 〈춘추(春秋)〉의 공양전이나 곡량전에 실린 기록을 살피다가 공자가 태어나던 해에 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이를 계산해보니 기원전 552년 8월 20일 공자가 태어났던 산동성의 곡부(曲阜) 지역에서 77%의 일식현상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교수는 더욱 엄밀한 천문학 계산을 거쳐 마침내 공자의 생일은 기존의 정설이 아니라 노나라 양공 21년 10월 경자일, 즉 기원전 552년 10월 9일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 해 더 빨리 태어났다는 말이다.

따져보면 날짜란 게 그저 끝없이 흐르는 시간을 사람이 자신의 편의에 맞게 잘라놓은 경계일 뿐이다. 부처님이든 공자든 그 분들의 마음은 태어나고 죽은 시간과 관계없이 아득한 옛날부터 머나먼 미래까지 변치 않고 살아 이어지는 진리다. 부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기고 실천한다면 하루하루가 부처님의 생일일 것이고,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의 소굴에 빠진다면 어느 때도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날짜가 언제든 부처님오신날은 신앙을 떠나 우리 인류에게 큰 축복의 날임은 분명하다. 신분과 능력, 성별이나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대자대비한 가피를 내리시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의미다. 자리행(自利行)보다는 이타행(利他行)이 더욱 소중해지는 요즘,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절감하게 된다.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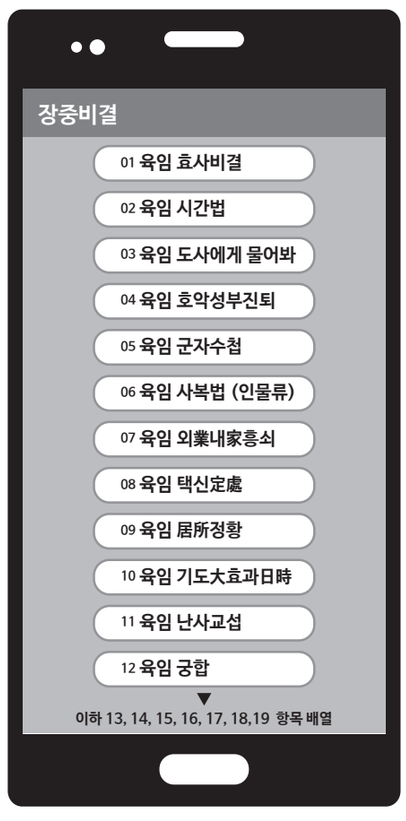
마이크 대금은 1년 써보고
아래의 내용과 추호도 다름없을 시 지불

1. 이태리 최고급명품마이크 직수입 한정판매, 시중에 있을시 일천만원 포상
2. 마이크와 50㎝ 떨어져야 수천만대의 시설소리로 업그레이드
3. 비싼시설 말고 마이크 하나만 바꾸어 수 만번의 염불소리를 신명나게 사세요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스님 휴대폰에 육임 '효사비결' CD프로그램을 담아 드립니다"
-언제(낮,밤) 어디서(한·중·일·미·동남아)든 정확도·속도성·착목도·효과성 보장-



본 육임 '장중비결(掌中祕訣)' 특장

1.영구실행
2.분실·파손·번호변경시 재장착보장
3.鬼害·不貞害·山所害 적중(해소방법 적시)
4.초사·시보·내정·비밀·당면사·일생사등 일체
5.수법효과 유무, 事성·불성 여부, 病치·불치 여부
6.미리 알아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원터치 구성
7.'효사비결' 종결판 (2019년도)장착
8.분기별 무료 지속적 업데이트
9.입금즉시 실행

주문 : 02. 6489. 3464
정가 : 70만원
계좌: 농협 317- 0013- 9239- 01 한국육임학회(천안종)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93. 5층 한국육임학회 컨텐츠개발부

유학자 · 사냥꾼… 마조 아래 一佛제자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⑨ 담장 · 영묵 · 석공혜장 :
마조의 제자들 (2)



마조의 제자 석공 혜장 선사가 주석했던 강서성 의황 석공사의 대웅보전. 대웅보전 주련에는 '석공사는 홍주(洪州) 마조선 도량이며 선기(禪機)를 전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이끌고, 극락으로 이끌어준다' 고 적혀 있다.

'무소유' 담장 선사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BC 5세기 중반 활동)는 목이 말라 물을 먹기 위해 동냥 그릇을 들고 강으로 갔다. 그가 강둑에 다다랐을 무렵, 개 한 마리가 그의 옆을 스쳐 달려가더니 강물에 첨벙 뛰어들어 실컷 물을 마시고 즐겁게 목욕까지 하였다.

디오게네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저 개는 나보다 더 자유롭구나. 개는 동냥그릇조차 갖고 다니지 않는군. 개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我)는 이 그릇을 도둑맞을까봐 몸에 안고 다녔다. 한밤중에도 그릇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걱정되어 잠을 깬 적도 있었으니, 개만도 못하지 않은가?' 그러더니 그는 강물에 그릇을 던져 버렸다. '소유물을 갖지 않겠다' 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겠다' 는 정신이 무소유 정신이다. 이 무소유 사상은 승려의 계율이기도 하다. 이런 무소유 사상에 철저한 선사, 담장이 있다.

담장(曇藏)은 마조 선사의 만년 제자이다. 조사선의 개조(開祖)인 마조(馬祖, 709~788)에게 제자가 많다보니, 제자들이 다양 각색이다. 이번 글에서 사냥꾼 출신 혜장 · 유학자 출신 영묵 · 담장을 소개하기로 한다.

담장의 일화는 〈전등록〉에 전하는데, 선사는 스승 마조가 열반하고 남악(南岳) 서원사(西苑寺)에 머물렀다. 담장은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늦은 밤에 경행을 하면 개가 와서 옷을 물었다. 오랜 시간 경행했다는 뜻으로 알고, 담장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다. 어느 날 개가 문 옆에 엎드려 계속 짖었다. 이튿날 아침, 새벽에 공양간 앞에 큰 구렁이 하나가 나타나 입을 벌리고 독을 내뿜고 있었다. 사미승이 겁에 질려 있자 선사가 말했다.

"죽음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저 놈이 독을 뿜고 달려들면,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독은 진실한 성품이 없어서 끓어오르면 강해지고,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으니 원수와 친척이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미물인 구렁이도 스님의 말에 감화를 받았는지 슬그머니 사라졌다. 또 어느 날 저녁, 암자에 도둑이 들었다. 개는 담장의 옷을 물더니 놓아주지 않았다. 선사는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라고 추측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도둑이었다. 담장이 도둑에게 말했다.

"누추한 암자까지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혹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도둑은 선사의 말에 감동을 받고 절을 한 뒤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나라 혜월(1861~1937) 선사에게도 비슷한 고사가 있다. 혜월이 머물고 있던 정혜사에 도둑이 들었다. 쌀을 훔쳐 지게에 지고 가려던 도둑이 가마니가 무거워 쩔쩔매고 있는데, 선사가 가만히 지게 짐을 들어 올려 주면서 도둑에게 말했다.

"쉿,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내려가게, 양식이 떨어지면 또 찾아오시게"



강서성 정안 보봉사 마조 선사 사리탑 뒷면. '마음 이외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 이외에 따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쓰여 있다.

제자들이 많던 마조 선사
무소유 삶 실천한 담장 등
출신 · 신분 · 직업 각양각색

또한 일본에 청빈한 삶을 살다간 료칸(良寬, 1758~1831) 선사가 있다. 료칸이 머물던 곳에 늦은 밤중에 도둑이 들었다. 물건을 훔치러온 도둑이 훔쳐갈 물건이 없어 실망하자, 료칸이 말했다.

"이 옷이라도 벗어줄 테니 가지고 가라."

유학자 출신 영묵 선사

지난 방거사 이야기에서 '선불장(選佛場)' 단어를 언급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마조의 제자가 있는데, 오설 영묵(五洩靈默, 747~818)이다. 영묵은 명문 가문의 유학자 출신이다. 영묵이 출가하게 된 인연이 매우 독특하다. 〈조당집〉에 의하면 영묵은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길녘에 마조가 머물고 있는 강서성(江西省) 홍주(洪州) 개원사(開元寺)를 방문한다. 영묵은 당시 마조가 인지도가 높은 선사로 알려져 있어 궁금하던 차에 단순한 마음으로 개원사를 찾은 것이다. 마조와 마주앉게 된 영묵은 선사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마조가 먼저 물었다.

"어디 가는 중인데, 여기에 들렀는가?"

"과거시험 치르러 장안에 갑니다."

"수재(영묵)는 가까운 곳을 놔두고 너무 멀리 가는군!"

"그러면 이 근처에도 시험장이 있습니까?"

"눈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영묵은 이런 인연으로 과거 시험을 접고, 개원사에 출가하였다. 며칠이 지나 영묵이 마조에게 삭발하겠다고 하자, 마조가 말했다.

"삭발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네만, 자네의 일대사 인연과는 별개의 문제네."

그런데 영묵이 삭발까지 하고, 여러 날을 수행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후배 정상좌와 마조가 문답하는 와중에 정상좌가 문득 깨달음을 이룬다. 영묵은 마조를 찾아가 따지듯이 말했다.(〈조당집〉 15권 '오설화상장')

"스님, 저는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출가했습니다. 저보다 늦게 출가한 정 상좌는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저는 왜 깨달음이 더딘가요?"

영묵은 주절주절 한참동안 스승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마조가 영묵에게 말했다.

"네가 출가하는 것은 내가 허락했지만, 그대의 정각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럴만한 스승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곳에서 700리 떨어진 남악산에 석두 선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아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가하고 삭발했다고 '부처에게 선택(選佛)' 되지 않으며,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자신의 수행 정진에 따라 부처에게 선택될 수 있다. 이 점이 대승불교 사상이다.

영묵은 남악산(南嶽山)의 석두 선사 사이를 오고가며 공부해 깨달음을 이루었다. 석두는 석두희천(700~790, 조동종의 종조)을 말하는데, 당시 석두는 마조와 쌍벽을 이루며 제자들을 지도했던 대선사이다.

사냥꾼이었던 혜장 선사

마조의 제자 중 사냥꾼 출신 제자가 있다. 석공혜장(石鞏慧藏, 생몰미상)으로 출가 전, 혜장이 산에서 사냥을 하다 우연히 마조를 만났다. 마조가 혜장에게 물었다.

"화살 한 대로 몇 마리를 쏘느냐"

"화살 한대로 한 마리를 쏩니다."

"스님도 사냥을 해보셨습니까?,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쏠 수 있습니까?"

"나는 화살 하나로 한 번에 떼거리를 잡는다."

이 말에 혜장이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리 제가 사냥 일을 하지만,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어찌 스님께서는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왜 그런 것은 알면서 자네는 잡지 못하는가?"

혜장이 마조의 말을 들은 뒤 화살을 꺾어 버리고 출가했다. 여기서 마조가 말한 '자신을 잡지 못한다 것' 은 마조가 혜장에게 자신의 번뇌를 타파할 것을 가르친다. 이후 혜장은 마조 문하에서 수행하였다.

어느 날 마조가 물었다.

"무엇을 하느냐?"

"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한번이라도 미망(迷妄)에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단번에 코끝을 잡고 끌어당깁니다."

"너는 소 기르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여기서 '소 기르는 법' 이란 번뇌로 가득 찬 자신을 다스려서 청정한 본원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소' 는 번뇌를 상징하고, 길들이는 '목동' 은 수행자로 비유해서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그림을 '십우도(十牛圖)' 혹은 '목우도(牧牛圖)' 라고 한다. 이 십우도가 유행한 것은 송나라 때인데, 마조가 제자들을 지도하는 기연(機緣)에 벌써 소 이야기가 등장한다. 후대에 소를 배경으로 선+그림이 나오면서 선화(禪畵)가 등장하게 된다.

하루는 혜장이 사형인 서당지장에게 물었다.

"허공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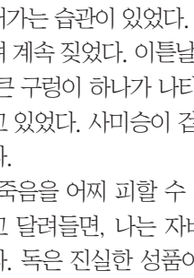
"어떻게 잡는가?"

서당이 손으로 허공을 더듬자, 석공이 "그래서 허공이 잘 잡히겠냐"며 핀잔을 주자 서당이 너는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석공은 느닷없이 서당의 코를 힘껏 잡고 끌었다. 서당이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아얏! 이 코를 놓으십시오. 코가 빠지겠습니다."

이 때 석공이 말했다. "허공은 이렇게 잡아야지!"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연화당 인왕 큰스님
열반 3주기 기념 추모재



2011년 7월 11일
평화기원대법회
에서 설법하시는
인왕 큰스님

열반제자
담마록카 큰스님
만덕 큰스님 - 2세종정
혜명 큰스님 - 초대 총무원장
법성(허남축) 큰스님 - 원로원장

삼보에 귀의하옵고,
존경하옵는 시방의 고승대덕 사부대중 여러분!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시어 대중포교 나눔의 자비실천을 몸소 행하신 불교계의 대 스승이신 인왕 큰스님 열반 3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인왕 큰스님의 열반 제자들을 추모하는 법회를 매년 함께 봉행하고자 하오니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자은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장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1길 28-1
대약사사(여래종 총무원)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편)

일시
불기 2563년(2019년)
5월 26일(음력 4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

문의
031-734-3205(성남 약사사)
043-731-2261(대약사사)
010-9292-4828(명안큰스님)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봉행위원

총무원장 명안 원로원장 능엄 종회의장 석산
포교부원장 도혜 호법부원장(문도회장) 성현 문도회부회장 무각 · 묘선 · 법화



태국 고위승려 공금횡령에 징역 26년

계속된 스캔들 번지며 승가 위상 떨어져

최근 태국 승가가 금전 스캔들로 추문을 낳고 있다. 지난해 경찰특공대가 방콕의 여러 사원을 급습, 사찰자금을 횡령한 출가자들을 체포한 바 있어 승가에 대한 신뢰가 급감하고 있다.

4월 18일 동남아 뉴스채널인 '비네어 뉴스'는 태국의 최남부 지역에 배정된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위 승려가 징역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태국 중앙형사재판소는 4월 18일, 태국 북부 뻿차분(Petchaboon)지역의 레드 까에(Lad Kae)사원의 전 주지였던 낏띠 빳차라꾼 스님에게 돈 세탁, 공금횡령을 죄목으로 26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태국 검찰은 낏띠 스님과 전 국립불교사무국(NBO)의 국장이었던 놉빠랏 베네자와따나난(Nopparat Benjawatananan)이 태국 최남부 12개소 사찰에 배정된 2,800만 바트(한화 약 11억5000만원)의 정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혐의가 걸린 놉빠랏 전 사무국장은 수사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했다.

태국검찰은 이들이 포교활동과 사찰 유지보수를 위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서류를 위조한 후, 금액을 중간에서 빼돌려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서류가 남아있는 12개 사찰들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돈 세탁 방지법'에 해당하는 13개 혐의가 있다"며 "배심원의 표결에서 징역형이 무겁게 나왔으나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감안해 26년형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출가자를 존중하는 태국 사회정서상 원로급 승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나 최근 불교교단 정화를 위해 왕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승랍이나 법계를 따지지 않고 죄의 경중을 묻고 있다. 이번 유죄 판결은 지난 8월 법원에서 사기, 돈 세탁, 컴퓨터 통신범죄, 강간 등의 사유로 위라뽈 숙폴(Wirapol Sukphol) 스님에게 1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지 8개월 만이다.

태국 승가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 불자들은 "승가의 위의와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처벌과 효율적인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우인 객원기자**

평화 향한 도보순례 나선 태국 스님

수탐 나테통 스님, 오는 7월까지 미국 도보순례

태국 스님이 도보로 미국횡단에 나섰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여정을 4월 24일 미국의 '폭스뉴스' 'KTRE9' 등이 보도했다.

방콕에서 온 수탐 나테통(Sutham Nateetong) 스님은 지난 3월 1일 66번 국도가 시작하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여정을 시작했다. 66번 국도는 캘리포니아에서 일리노이로 이어지는 총연장 3,940㎞의 미국 횡단 도로다. 스님은 일리노이에서 다시 뉴욕까지 걸을 계획이다.



텍사스주에 도착한 수탐 나테통 스님. **사진출처=수탐 나테통 스님 페이스북**

수탐 스님은 인터뷰에서 "나는 평화를 위해 걷는다. 평화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세계에는 많은 전쟁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얻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하루 20시간 가까이 걸으며 밤에는 텐트나 드라이버 모텔에서 숙박하고 있다. 도보순례가 지역뉴스와 SNS에 소개되면서 숙소를 안내하거나, 새로운 신발을 보시하는 등의 많은 관심이 몰렸다. 지역 불자들은 스님을 환영하며 법문을 청하는 등의 이벤트을 열었다. 스님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모두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전했다.

스님의 도보순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전과 탈핵의 메시지를 위해 남부 인도에서 네팔,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태국에서 베트남을 도보로 순례했다. 스님은 오는 7월 미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수탐 스님은 오는 11월 태국에서 프랑스 파리로 걸어갈 계획을 하고 있다. 스님은 "(11월의 도보순례는) 약 1만 2000㎞의 거리다. 완주까지 2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실종 24년' 판첸라마 얼굴은?

티베트 공동체, 법의학 활용해 30세 추정사진 제작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불교는 전통적으로 환생제도를 따른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현 달라이라마 역시 14번째 환생이다. 이런 달라이라마의 바로 뒤를 있는 판첸라마의 행적이 묘연한지 벌써 24년째. 4월 25일 영국의 'BBC 뉴스'를 비롯해 '라이언스 로어' '아시아 뉴스넷' 등 외신들은 실종된 판첸라마의 30세 생일에 맞춰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1989년 10대 판첸라마 최끼갤챈이 티베트에서 의문사한 후 판첸라마의 환생자는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판첸라마는 달라이라마의 바로 뒤를 잇는 지위기 때문이다. 판첸라마는 전통적으로 차대 달라이라마를 공인하고, 교육을 책임지는 직무를 맡아왔다.

1995년 5월 14일 달라이라마는 동북 티베트의 낙추(Naqchu)지역에서 태어난 6세의 최끼 니마(Choekyi Nyima)를 11대 판첸라마로 공인했다. 그러나 3일 후 최끼 니마와 가족 모두가 실종됐다. 당시 중국정부는 "이 소년은 판첸라마가 아니며 '분리주의자'들에게 납치될 위험이 있기에 보호 중"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티베트불교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찾아낸 갤챈 노르부(Gyaltsan Norbu)라는 소년이 진정한 환생자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11대 판첸라마로 옹립했다. 반면 최끼 니마는 '세계에서 제일 어린 정치범'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다.

영국의 망명티베트인 공동체와 국제 티베트 네트워크(International Tibet Network)는 실종된 11대 판첸라마의 30

1995년 판첸라마 환생자 공개
3일 지나 가족과 함께 실종돼
중국정부, 새 후보자 옹립키도
티베트인 "공개된 사진 감동"

세 생일을 맞아 특별한 계획을 시도했다. 단 한 장뿐인 최끼 니마의 사진을 사용, 법의학을 활용한 나이 변환 기술을 통해 30세 추정사진을 제작한 것이다. 현존하는 사진은 1995년 당시 티베트에서 촬영돼 비밀리에 달라이라마에게 보내진 환생후보자들의 프로필에서 나온 것이다.

사진제작을 위임받은 영국 최고의 법의학자 팀 위든은 "다른 경우엔 가족이


실종 직전 촬영된 최끼 니마의 사진(사진 왼쪽)과 나이 변환 기술로 만들어진 30세 추정사진(사진 오른쪽). **사진출처=Free Panchen Lama.org**

나 형제의 사진이 있지만, 이번엔 단 한 장뿐이라 제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건강상태나 생활환경을 전혀 알 수 없어 평균건강과 체중, 헤어스타일을 모두 가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약 두 달에 걸쳐 제작됐다. 완성된 사진은 4월 25일, 최끼 니마의 30세 생일을 맞아 영국의 잠양 불교센터(Jamyang Buddhist Center)에서 공개됐다. 사진을 본 티베트인들은 전통적인 예를 표하며 신심을 보였다. 툽땐 왕첸(Thubten Wangchen) 스님은 "놀라운 작업이다. 이 얼굴은 너무나 인상깊다"고 감상을 말했다.

영국 망명티베트인 대표회의 임원인 땐진 제가(Tenzin Zega)는 공개회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너무나 뭉클하다. 모든 티베트인들이 그럴 것이다. 이 사진이 사라진 판첸라마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작을 기획한 국제 티베트 네트워크의 맨디 맥캐언(Mandie McKeown)은 "이 사진을 통해 판첸라마의 석방 캠페인을 다시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캐언은 "최끼 니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상반된 정보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지난해 라닥 방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 최끼 니마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건강하며, 일반교육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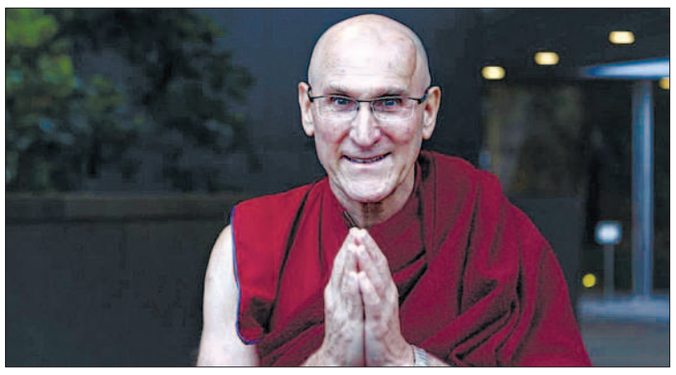
"향락과 행복은 동의어 아니다"

달라이라마 주치의 커진 스님
일본에서 SEE프로그램 교육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대화가 이뤄졌다. 4월 20일 일본의 '포브스 재팬'은 일본의 '인간 내면가치 연구소(Human Values Institute)'에서 개최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인간 내면가치 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달라이라마의 양방 주치의로 유명한 배리 커진(Barry Kerzin) 스님이 2010년 도쿄에 설립했다. 연구소는 "인간이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과 건전한 신체가 필요하다"는 이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2015년 한 차례 방한한 바 있다.

교육자들을 위해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청년을 길러내는 미래교육에 대한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강연에서 커진 스님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자신뿐만 아닌 주변과 사회에 대한 정서 학습, 인간윤리에 대한 학습이 이른 시기부터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SEEL(Social Emotional and Ethics Learning; 사회정서와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달라이라마의 양방 주치의로 유명한 배리 커진 스님. **사진출처=포브스 재팬**

스님은 "잘 알다시피 행복은 물질적인 수입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보이는 현상과 내재된 사실성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눈에 보이는 특정한 물건의 소유나 활동을 향유하는 등의 향락과 행복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은 인생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7개의 마음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마음챙김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내면을 향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작가는 "바쁜 일상 속에 우리가 잊고 있던 마음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마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교사 스스로의 생활에도 무척 도움이 된다"며 내용에 크게 만족한다는 후기를 남겼다.

커진 스님과 연구소가 개발한 SEEL 프로그램은 달라이라마의 후원 하에 인도의 공공교육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당시 SEEL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집중력과 자기가치관, 윤리관이 크게 향상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SEEL프로그램은 미국의 에모리 대학, 인도의 바나재단, 달라이라마의 참여 하에 더욱 개발돼 'SEE(Social, Emotional, Ethical Learning; 사회성 · 정서 · 인성 교육)'로 발족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⑨ 입하(立夏)
느티떡 · 산채비빔밥 · 참죽장아찌

부처님오신날 맛보는 별미 나물

장 뜨기가 무섭게 벌레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나무는 햇살기운을 더해 빛이 깊어지고 들판의 보리밭은 싹이 여물고 있다. 입하는 보리덕분에 이름도 많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기운이라고 해서 맥량이라고도 부르는데, 현대인에게 생소한 명칭이지만 선조들의 농경사회에서는 땅을 의지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이 삶에서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기에 이처럼 불렸다.

곡우차를 만들지 않고 기다렸다가 작설차의 기운이 꽉 차는 시기인 입하에 첫 잎을 딴다. 살청을 하고 차를 만들어 부처님께 헌다하고 비로소 첫 모금을 넘길 때의 시원함이란 그저 찻잎을 틔운 차나무가 신통하기만 할뿐이다.

부처님오신날 준비로 바쁜 시간을 마주했다. 사찰 초입에 오색등을 달고 종일 도량을 정리한다. 두릅이 끝물이고 다래순은 생나물로 데쳐서 먹는 나물보다 묵나물로 만들어 두고 고사리처럼 저장해 사용한다. 그늘에 자라는 덕에 꽃이 늦은 으름꽃과 으아리꽃의 향기에 취해도 본다. 여름의 시작이라고 해서일까 점점 봄은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느낌이다.

마을에 내려가 느티나무순을 따와서 느티떡을 만든다. 손톱만큼 자란 느티순은 하얀 백설기에 꽃잎이 날리듯이 고운 떡이 된다. 조금만 더 자라서 질겨지면 절구에 찧어 느티순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 쌀가루와 잘 버무려야하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야 떡을 쪄놔도 떡 모양이 가라앉지 않고 형태를 유지한다.


느티떡


산채비빔밥


참죽장아찌

어릴 적 기억 속 부처님오신날은 공양물을 머리에 이고 산길을 따라 폭포를 지나며 잠시 쉬다 보면 땀을 닦아주신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날이다. 더 어릴 적에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자라서는 한손을 잡고, 더 자라서는 어머니의 부재로 더 이상 절에 데려다 주는 이가 없었기에 홀로 다녔다. 불가의 인연을 다 자라고 나서야 다시 맺게 됨은 세세생생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살아온 인연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리산 깊숙이 들어가면 들미나무 군락지가 있다. 들메나무라고도 하고 들미라고도 한다. 과거 방송에서도 산나물다큐 프로그램에서 다루었지만 매번 갈 때마다 잘 찾아가는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것 또한 신통하다. 이정표 하나 없이 가다가 자주 여러 갈래 길이 나타나는데도 지혜롭게 들미나무가 있는 곳을 망설임 없이 찾아간다. 산작약의 고운 자태도 흘깃 보고 가지 않으면 돌아오는 시간을 놓치고 어둠속에서 헤매야 한다.

하여 바쁜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개울을 건널 때면 뛰다가 오르막 산길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른다. 거의 정상 무렵에서 만나는 들미는 천연기념물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기에 상하지 않게 아주 적은 양을 나무순만 채취해서 내려온다. 장날이면 나오는 보살님들도 이제는 연로해서 나물을 찾아 산을 오르지 못한다. 점점 숲은 짙어지고 나물은 해가 갈수록 만나기 어려운 품목이 되고 있다. 직접 산을 오르지 않거나 재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들미는 발우를 만드는 물푸레나무와 똑같이 생겨서 자칫 놓치고 만다. 기껏 가져온 나물이 물푸레 잎이니 소모공덕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산청에 와서 살다보니 이 지역민들이 속담에 "하동사람들 두릅 팔아서 들미 사먹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궁금한 속담 덕에 산에 오르게 되었다.

쉽게 만나기 어려운 나물이었기에 수소문 끝에 길잡이를 만나 산에 오르며 들미를 만났다. 초파일에 들미순을 나물로 만들어 비빔밥에 넣으면 모두 기절하게 맛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적당히 쓴맛과 고소한 맛이며 나물답지 않게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다. 말린나물은 잘 두었다가 추석에 헌공음식에 사용한다.

절집의 오랜 식재료 중 참죽나무순은 여러 용도로 쓰인다. 절마당마다 몇 그루씩 식재하는 참죽은 급하게 밥상을 차릴 일이 있을 때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 부침개도 좋고 장떡도 좋고 두고두고 먹는 장아찌는 엄지를 세우게 한다.

금수암의 초파일은 등다는 분보다 공양하는 분들이 더 많다. 비빔밥과 참죽장떡, 그리고 열무물김치를 모두에게 제공한다. 미나리와 참가죽에 표고와 고추장, 된장을 넣어 장떡을 구워내니 분주한 손길만큼 모두에게 한 끼 잘 대접하고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찬탄하는 날이다.

느티떡
재료: 멥쌀가루 5컵, 느티순 2컵, 소금 약간
1. 쌀가루는 방앗간에서 빻아올 때 소금을 넣어서 쌀을 빻는다.
2. 느티순은 다듬어서 씻은 후 채반에 담아놓는다.
3. 쌀가루를 채에 내린 후 물기가 있는 느티순과 섞는다.
4. 시루에 넣고 20분간 쪄낸다.

산채비빔밥
재료: 밥 4공기, 고사리 100g, 도라지 80g, 당근 80g, 무 100g, 콩나물 160g, 취나물 100g, 생표고 2개, 집간장 3T, 소금 2T, 참기름 2T, 고추장양념장(고추장 2T, 조청 1T, 채수물 1t, 참기름 1T, 참깨 1T)
1. 고사리는 물에 삶아 제물에 담가서 불린다.(익었다고 건져서 찬물에 바로 헹구면 비린내가 남)
2. 무는 채를 썰어서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고 무친다.
3. 도라지는 소금을 넣고 주무른 다음 물에 씻은 후 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무친 다음 마른 팬에 덖는다.
4. 콩나물은 씻은 후 냄비에 소금과 참기름을 약간 넣고, 물 3T를 넣고 콩나물을 넣고 뒤적이며 익힌다.
5. 당근은 채썰어 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덖는다.
6. 취나물은 끓는 물에 데 친후 건져서 헹군 후 물기를 짠 다음 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무친다.
7. 생표고버섯을 얇게 썬 후 팬에 참기름을 약간 넣고 익힌다.
8. 고추장 양념을 만든다.
9. 식기에 밥을 담고 나물을 얹은후 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참죽장아찌
재료: 참죽 3㎏, 집간장 1컵, 고춧가루 1컵, 고추장 반컵, 조청 반컵, 소금 반컵
1. 참죽은 줄기를 떼어내고 부드러운 부분만 다듬어서 소금물에 절인다.
2. 소금물에서 건진 참죽을 맑은 물에 헹군 후 채반에 담아 그늘에 3~4시간 말린다.
3. 양념을 배합한 후 물기가 빠진 참죽을 넣고 버무린 후 용기에 담아 6개월 숙성시킨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⑨ 걷기

'걷기' 체지방 연소에 가장 좋은 운동

김포시 풍무동에 가면 중앙승가대학과 함께 '장릉(章陵)' 이 있다. 일산에서 가까워 가끔 걷기 위해 가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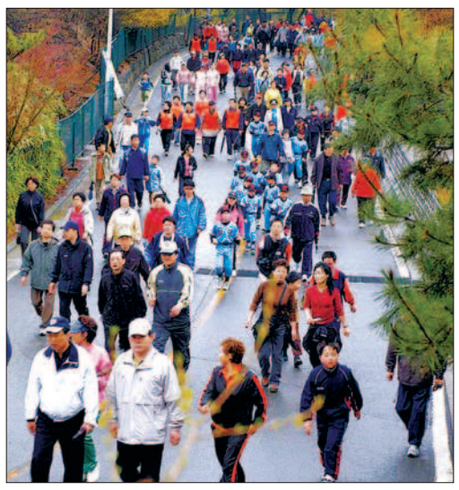
휴일을 맞아 아들을 데리고 장릉 능원의 둘레길을 두 바퀴 돌았다. 내게 주어진 걷기의 하루 목표를 달성했다. 오늘은 걷기의 중요성과 효능, 걸을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 풀어볼까 한다. 한여름이 오기 전 이 아름다운 오월부터 한 달간은 정말 걷기 좋을 시기다.

'왜 걸어야 하는 것인가' 에 대해 나는 정신과 신체, 두 가지 면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걷기는 기본적인 인지기능과 창의적인 연상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걸으면서 무의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눈으로 본 모든 것들을 일련의 신경자극으로 바꿔 뇌로 전달하면 뇌는 활발하게 그 정보를 분류하고 가치를 분석하여 저장하거나 지워버린다. 이러한 활동은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기존에 간직해두었던 연관 정보들과 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창의적 연상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취적인 기분이 들고 우울감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전방 15도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10~15미터 정도 앞을 보면서 턱은 당기고 가슴을 펴고 가볍게 주먹을 쥐고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며 가슴을 펴고 보폭을 좀 크게(자신의 키cm-100) 걸으면 몸은 저절로 곧은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북목' 이나 '일자목' 같은 척추의 변형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움츠렸던 가슴이 펴져서 폐활량이 늘게 된다. 또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므로 하체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다리가 붓거나 차가운 증상이 개선된다. 물론 걷기에 의한 혈관확장 효과는 전신적으로 작용하여 전신의 혈행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도 정상화시켜 고혈압, 중풍, 협심증,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혈행개선 효과는 생식기능에도 작용하여 난임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경제적 여건 개선은 비만 인구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살과의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 휴전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거북목, 일자목 등 척추 변형 예방
혈행 개선으로 고혈압, 중풍 등 예방



걷기는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이다. 자전거 타기나 뛰기보다 걷기가 2배 이상 지방을 더 잘 분해시킨다. 적어도 30분은 걸어야 지방이 본격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니 최소 30분은 걸어야 한다. 그러나 걷기를 단번에 1시간 이상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 50대 이후에는 무릎관절에 연골이 닳는 퇴행성관절염이 생기기 쉽고, 연골이 닳고 또 재생되는 과정이 반복될 때 그 균형이 깨어지는 시간이 1시간 정도이므로 40대까지는 50분, 5,60대는 40분, 70대 이후는 30분 정도 보폭을 크게 해서 좀 빨리 걷는 것을 권한다. 걷기 시작 후 5분 동안과 마무리 5분 동안은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그 중간에는 말을 하기 벅찰 정도의 속도로 빨리 걷는 것이 좋다.

걷다보면 '파워 워킹' 이라 하여 힘차게 좀 더 빨리 걷는 경우도 있고, 뒤로 걷는 사람도 있다. 또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은 계단을 걷기도 한다. '파워 워킹' 은 자신의 키(cm)에 0.45를 곱하여 얻어진 값으로 보폭을 정합니다. 상당히 빨리 걷는 것이죠. 빨리 걷는 동안 계속 파워 워킹을 하는 것이 좋지만 나이가 좀 있거나 관절에 부담이 가는 사람은 중간에 10분마다 1~2분간 파워 워킹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뒤로 걷는 것은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머리를 돌려 보면서 하여야 하고, 장애물이 없는 길에서 앞을 보고 걷는 동반자와 함께 서로 교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특히 강화하고, 앞으로 걷기보다 더 긴장한 상태기 때문에 신경의 통합기능이 개선되고 열량 분해도 2~3배 더 많습니다. 주 3회, 10분간 앞으로 걷기 후에 하도록 한다.

계단걷기는 평지 걷기의 1.5배 이상 에너지를 소모한다. 특히 발끝으로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더하여 장딴지 근육도 강화된다. 다만 계단을 올라야 하고, 계단 내려오기는 관절보호를 위해서는 권하지 않는다. 오를 때는 두 다리에 체중이 분산되지만 내려올 때는 앞으로 내민 다리에 모든 체중이 실리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일상적 활동으로 걷는 것에 더하여 운동 삼아 4회 정도 위와 같이 걷는다면 그 걸음은 분명 건강을 살릴 것이다.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강명희

〈7〉 6문–촛불명상

촛불로 녹여내는 수많은 業



관상법에는 생각의 모습을 관찰하는 관상법(觀想法)과 밖에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관상법(觀相法)이 있습니다. 생각의 모습을 관찰하는 관상법은 생각만 관찰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이 항상 떠오르고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생각에는 그냥 홀연히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가 붙어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다 관찰되어서 생각이 홀연히 떠오르지요. '홀연히 생각이 떠오르네' 하고 아는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한 것입니다.

밖의 모습을 관찰하는 관상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밖의 사물을 관찰하는 것, 점을 관찰하는 것, 촛불을 관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점이나 촛불이나 바깥에 있는 여러 사물을 그대로 바라보고 잘 바라보는 그것이 관상법이지요. 봄에 막 돋는 새싹을 바라보면 엄청난 생명력이 눈을 투과해서 들어옵니다. 그 수많은 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들어오니 현기증이 나지요.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니까 막 들뜨거든요. 자연에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상법 중에 태양명상이라고 있어요. 〈관무량수경〉에 보면, 태양을 집지해서 관상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글이글 타는 해를 보면 실명하니까 지는 해를 보라고 써 있습니다. 지는 해를 봐야 안정적이면서 지긋하게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거든요.

밖의 사물을 관찰하는 관상법, 모습을 보는 관상법은 눈으로 밖의 모습을 지긋하게 보는 수행법입니다. 바깥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과 사물의 형상과 색깔을 관찰하지요. 빨간 꽃이 있으면 빨간색만 봅니다. 꽃을 보면 위는 빨간색인데 밑은 초록색입니다. 빨간색을 계속 보고 빨간색이 나를 사마타했을 때와 초록색을 사마타했을 때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달라요. 분홍색을 보면 분홍색 마음이 드러나지요. 보라색 있는 데 가서 내가 한 번 봐주면 보라색이 나를 봐주지요. 외부에서 나를 사마타해 줍니다.

자연 관상법은 자연에 속한 여러 가지, 해와 달 같은 것을 봅니다. 해는 항상 비춰 주고 달은 보름달, 초승달이 다 아름답지요. 날씨 좋으면 그날그날 달을 보세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더 선명해요. 해, 달, 별, 나무, 구름, 바다, 땅, 바위, 허공, 하늘, 동식물 등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현상과 몸의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연 관상법입니다.

수행하면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 순간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다 있습니다. 이 순간에 지혜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요. 특별한 게 있다고 여기면 이걸 안 보고 저걸 보거든요. 이 순간 이 사람을 봐야 하는데, 이 순간 저 사람을 봅니다. 그럼 맨날 꽝이지요. 관상법을 하면서 별거 아닌 것 속에 진리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가까운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다들 가까운 것을 잡고 있거든요. 수행을 많이 하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일정한 사물과 형상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대로 오롯하게 관상합니다. 옛날엔 불상으로 관상을 많이 했어요. 물건 같은 것을 바라보기도 했지요. 색깔 관찰은 청황적백의 색깔들과 그 색깔들의 조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벽지가 하얀색인데서 명상하면 하얀색이 들어와요. 눈길을 걸으면 하얀색이 계속 들어와서 좋습니다. 그것이 사마타가 돼서 내 마음의 뭔가를 열어 줍니다. 비 올 때 관찰하면 어두컴컴한, 무채색 같은 기운들이 들어와요. 자연을 접하면 마음 깊숙한 데가 열리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이 모든 것에서 동등하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연명상은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요.

관상법의 하나인 촛불명상
촛불을 그대로 관찰해야해
감정이 변하며 마음 보이고
사마타로 끝내 없앨 수 있어

촛불명상을 하는 법

촛불명상은 관상법의 하나입니다. 관상법은 부처님 상호 같은 것을 보면서 내 안을 관상해요. 상호 그대로 이지러지지 않게끔 봅니다. 태양을 보고 태양의 있는 그대로를 관찰합니다. 태양이나 촛불을 보면 잔상이 남아서 관상이 바로 되거든요. 그게 관상법입니다. 그 이미지를 보는 것이지요.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촛불을 관상하는 것이 촛불명상의 특징입니다. 촛불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지요.

촛불명상의 핵심은 촛불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을 관찰하고, 차가움이 아닌 따뜻함을 관찰합니다. 촛불은 따뜻한 에너지가 있어서 많이 관찰하면 힘이 뭉쳐 있어 힘을 못 쓰는 사람들한테 좋아요. 뭉쳐 있는 힘을 촛불이 녹여 주기 때문에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한테도 좋아요. 촛불에 화기가 있어서 따뜻함이 몸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촛불명상이 몸의 냉기와 열기를 관찰하는 불 관찰에 해당합니다.

촛불을 보면서 많은 감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들이 변하면서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촛불은 신념처면서 수념처에 들어가요. 사실은 심념처까지 들어가지요. 촛불이 눈에 닿으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 관찰하면 법념처에도 들어갑니다. 촛불이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점 관찰과도 같습니다. 노랗고 빨갛고 희고 푸르고 여러 가지 색깔을 띄기 때문에 물질명상, 색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에너지가 있고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관찰할 수 있어서 정서를 관찰하는 데 촛불이 참 좋습니다.

촛불명상의 방법은 별게 없습니다. 촛불을 켜고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기도 해요. 촛불명상은 변화하는 촛불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촛불을 계속 눈으로 마주하고 몸으로 마주하고 있으면 촛불의 불빛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에 쌓여 있던 마음들이 반응하는데, 그렇더라도 촛불만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촛불의 열 기운이 그 마음들을 녹여서 사라지게 해요. 내가 촛불을 사마타하면 촛불은 내 마음을 사마타합니다. 사마타의 힘이 내 마음을 녹이고 내 업들을 녹이고 내 안의 수많은 감정들을 알게 해줘요.

촛불을 관찰하려면 먼저 눈의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피로한 그 상태를 관찰하세요. 눈의 피로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 앞에 놓인 촛불을 바라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촛불만 계속 보세요. 드러난 생각과 강한 느낌들을 촛불의 따뜻함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촛불을 봅니다. 촛불로 해결이 안 되거나 눈의 피로가 심해지면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관찰하세요.

내가 촛불을 본 만큼 촛불도 나를 봤기 때문에 촛불이 내 것을 찾아줍니다. 내가 촛불을 보고 촛불은 나를 보고 나도 나를 보기 때문에 더 잘 찾아줘요. 내가 이 사람한테 덕을 베풀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덕을 베풀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뭘 베풀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이득을 줍니다. 세상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럼 받을 게 없으니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고 어떡해요? 이제라도 베풀어야지요. 베풀지 않으면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 이치를 알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씨앗을 심어야지요.

꾸준히 수련해야 한다

사실 촛불 보는 게 힘들어요. 촛불은 별거 아니지만 촛불을 보면서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알아차려야지요. 알아차림이 되면 내가 대상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만큼 밀어대는지 알아요.

반야가 많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늘 알아차립니다. 번뇌가 줄어든 상태라 번뇌로 내 마음이 좌지우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번뇌가 깨져 나갈 때 마음은 굉장히 좋아져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알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감이 있거든요. 윤회를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될까? 한소식 했는데 왜 안 될까?' 늘 궁금했어요. 진리는 빤히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환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내려놓음이 안 됩니다. 윤회가 압축파일처럼 되어 있으니 세상일에 빠꼼하고 이해타산이 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압축돼 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공중에 그린 그림을 그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윤회한 경험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굵게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물거품으로 올라옵니다. 윤회가 낱낱의 파도라면, 그 낱낱이 하나하나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낱낱을 잘 보면 그 속에서 본질을 알 수 있어요. 낱낱 하나하나가 본질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수련회 가서 한 번에 깨우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부처님도 온갖 고행 끝에 깨우쳤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지적 호기심, 지적 허영심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분리돼 있을 때는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되어 있으니 갖고 와야 내 소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다 번뇌거든요. 이 잘못된 인식을 버리려면 관을 해야 합니다. 관찰하면 번뇌가 떨어지는데, 알아차려야 버릴 수 있고 찾아내야 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붙는 게 의도지요. 불교용어로는 작의(作意)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도, 번뇌가 많은 사람은 누군가 옆에서 의도를 불어넣어 주거나 스스로 의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도반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해요. 선생님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합니다. "수련하러 오세요"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그나마 전생에 복을 지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찌질해도 뭔가 복을 지은 사람이 가르침을 배울 기회도 만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요. 그 의도는 자기가 내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세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두루 누릴 수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수련해서 진리를 알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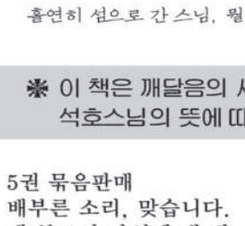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청년의 보배
3일만에 깨치는 야포禪



국판 218쪽
석호 지음
12,000원

철저하게 친절한
깨달음으로의 안내
부디 실행하라
그대 탄생의 이유
완전한 존재가 된다.

홀연히 섬으로 간 스님, 뭘 하시나 했더니 법어를 낚고 계셨네요.
– 제자 광목심 장윤정

❋ 이 책은 깨달음의 세계화 · 나눔을 실천하라는 저자 석호스님의 뜻에 따라 5권 묶음으로만 판매합니다.

5권 묶음판매
배부른 소리, 맞습니다.
배 부르니 당신께 내 밥
덜어드릴 수 있어 좋지요.
주는 게 복이니까
깨달음의 선물, 선물하세요.
선물하고 또 선물하면
당신 마음의 키는 쑥 커집니다.
커진 만큼 넉넉해지고
커진 만큼 평온해지므로
배부른 이 권유는
당신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욕지도에서 석호 물처럼

모든 게 변한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줄 수 있을 때
줘라.

❋ 석호스님 법문초청을 원하는 사찰이나 단체는 20일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5권 정가 : 60,000원 → 공급가 : 54,000원 (배송무료)
주문처 : 도서출판 연 화 ☎ 010-9377-1923
주문송금계좌 : <농협> 703-01-384100 (지차연)



대행 스님

눈을 뜨고 푹 자야만이 죽느니라

어떻게 참선 공부를 해 나가야…

질문 생활 참선이라는데 일상생활 하면서는 어떻게 참선 공부를 해 나가야 하겠는지요.

답변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거일동이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는 참선을,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참선이다. 그럼으로써 모든 일체를 쉬어라. 놔라. 맡겨라.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감사해라. 너의 몸뚱이는 네 주인의 시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시자는 주인에 의해서 움죽거릴 뿐이니 너는 쉬어야 된다. 너와 더불어 모든 일체를 다 바로 쉬어라." 하는 거죠. 그것은 종 문서를 놓지 않고는 절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접착불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구워서 내는 데 역점이 있는 것이 참 묘하다는 얘깁니다. 우리 인간도 마음에 한번, 바깥의 일을 모두 오관을 통해서 들여 가지고선 다 여기에서 납득이 돼 가지고서 딱 설계를 하거든요. 내가 한다는 결정을 해 가지고 내지요. 이것은 구워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진 않거든요. 그와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하나를 주판을 놓을 줄 알면은 만 개도 놓을 수 있고 천 개도 놓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날짜도 달수도 해년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고 지키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거기 포함된단 얘기죠. 질서를 지키는 것도 당신네 마음이요, 질서를 안 지키는 것도 당신의 마음들이니까. 그래서 잘 지키는 것만 정법이 아니고 잘 안 지키는 것이 사도가 아니고, 즉 사도나 정도가 둘이 아닌 그 하나의 근본에서 정당히 나오는 지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만심이 있어요. 아상이 있고. 그래서 자기를 위시하고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 자기가 가졌다 그러고, 저놈 땜에 망했다 그러고, 저놈 때문에 난 살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까닭에 내 진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놓고 되돌아서 나를 보는 예가 없어요.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어도 저쪽으로 내가 저 사람이 돼



그림 · 최주현

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할 텐데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막바로 들어가는 거죠. "너!" 이럭하고….

그러니 어찌 이 한마음의 도리를 알 수 있으며 이 평등한 균형이 잡힌 이 진리를 알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천차만별로 이렇게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는 이 모래알 같은 광대무변한 도리를 어찌 한생각에 주판을 다 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 한생각에는, 근본에는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 도리가 하나만 풀리면은 다 수학이 놔지는 거예요. 주판이 다 놔져요. 그러니 어디에 붙여도 도 아닌 게 없고, 어디에 붙여도 법 아닌 게 없고, 어디에 붙여도 진리 아닌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갖다 놔도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즐거움 아닌 게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지마는, 우리가 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자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허망해서 쓸모가 없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이 허망한 이 시자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또 근본 내 씨가 아니었더라면 내 이 콩나무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러니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격이죠. 콩씨가 먼저냐 콩나무가 먼저냐. 이것도 먼저가 아니고 이것도 먼저가 아닙니다. 단지 그저 이 콩나무는 콩나무대로 콩씨가 열리고 또 움죽거리지 않는 거 같으면서 움죽거린다 이겁니다. 콩나무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줄 안다면 바로 콩나무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유생물이나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돌의 말도 들을 수 있고 흙의 말도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고 올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오관을 통해서 내가 부릴 줄을 알아야지 내가 오관을 통해서 내가 말린다면 아니 되느니라." 이건 바깥으로 보고 듣고 바깥으로 돌지 말라는 소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암 스님께서, 내가 그때에 스무 살도 못 될 때예요. "스님, 얼마만큼 가면은 죽습니까? 죽으려고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아요." 하니까, 내 몸뚱이가 죽는 줄 알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렇게 가는데 죽어라, 죽어라, 자꾸 '죽어라' 그러거든요. 이거 몸뚱이가 아주 죽어 버리라는 줄 알고 그냥 차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안 죽어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곧장 "스님, 얼마만치 가면 죽습니까?" 하니까 눈을 뜨고 푹 자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푹 자야만이 죽느니라." 그러거든요.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눈을 뜨고 푹 자지 않으면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이러는 것은, 즉 말하자면 이 전자자동기, 이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내 마음에 의해서 스위치만 눌렀다 하면은 그냥 자동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동기로 돌아가는 이 자체는 우리 이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물질과 더불어 이 세상의 진리가 전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업식이 녹아져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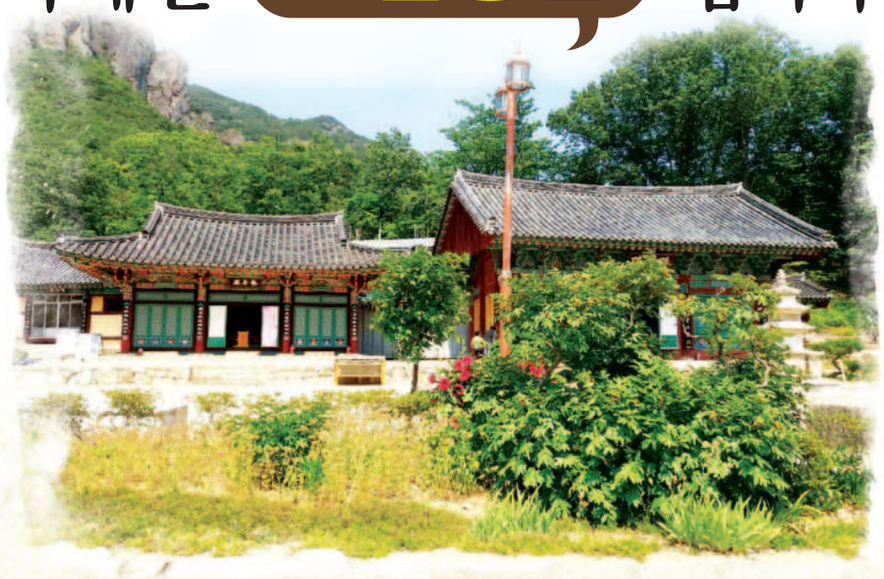
질문 마음이 넓어지면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는다 해도 상처를 받지 않을 테지요. 저는 공부를 한다 하면서도 자꾸 상대의 말에 자꾸 속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업식이 다 녹아져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답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악업 선업이 뭉쳐서 인간이 됐는데, 그것들 모두가 내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만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을 악으로 쓴다거나 선으로 쓴다거나 그런다면 그대로, 악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같이해 주고, 선으로 쓴다면 선으로 같이해 줍니다. 우리가 지구 벌레라고 합시다. 우리 몸속에 들어 있는 벌레와 같이 이 몸을 집으로 삼고 사는 내 생명들과 같이 우리도 지구의 벌레로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항상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구도 수명을 오래도록 둘 수 없는 그런 경지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몸도 그렇습니다. 지구와 같이 안에서 파워가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다면 이 몸뚱이가 벌써 망가집니다, 세포가 굳어지고. 우리는 몸에서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분들은 나 하나가 금방 깨쳤다고 해서 한 소식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소식 얻은 게 아닙니다. 갓난아이 금방 낳아 놓고선 "너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서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 깨친 사람은 어린애 금방 낳아 놓은 거와 같아서 그걸 부모가 길러서 또 가르쳐서 사회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쳤으면 그때서부터 실험으로 들어가고, 즉 말하자면 체험으로 들어가고 연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체험이 된다면 바로 당당하게 내 그 생명 안으로는 내 생명체들을 모두 한마음으로 굴려서 지배하고, 바깥으로는 마음들을 조절해서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해 놓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번 죽으면서, 즉 죽는다는 것은 "나를 내 주인공에 놔라. 컴퓨터에 놓아라."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라." 이러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는 겁니

☞ 18면으로 계속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도의 길은 관 속에 들어가야 가는 길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다. 과거에 입력이 돼 가지고 지금 현실에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지금 고생하는 것을 바로 입력을 다시 한다면 앞서의 팔자 운명이라는 그 언어가 없어지고 업보가 없어지고 녹아진다 이 소립니다.

지금 우리 몸뚱이가 살아서 지금 이렇게 움죽거리면서 가기도 바쁘고, 옳게 가기도 바쁘고, 나 발견하기도 바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도 바쁘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우주 천지가 전부 가설이 돼서 직결돼 있다는 그 사실도 연구하고 탐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싸울 새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욕을 해도 그렇고 나하곤 상관이 없는 거죠. 죽인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빠요, 지금.

인간에까지 올라온 것도 천 년을 공을 닦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돼 가지고도 거기서, 즉 말하자면 진화해서 승진을 못한다면 여기서 빙빙빙빙 끝 간 데 없이 돌다가 또 미해져서 잘못되면 짐승의 허물도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의식만 가지고 있다 보면 아, 두 부부가 자는 그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 거기 아무 데나 들어갈 수밖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사람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 짐승의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있으나 우리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건 왜냐하면 과거는 지금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으니 오늘날에 지금 앉아서 모두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생활을 하는 거를 한번 지켜보면서 여유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잠재의식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이거죠.

이 종교라는 것도 지금 가톨릭교 기독교 불교 할 거 없이 전부 바깥에서 숭상하고 바깥에서 끄달리고 바깥에서 구하고 그러니, 전부 그게 미신들이지 뭡니까?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면 미신이 있는 거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지 않는데 귀신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귀신 노릇을 안 한다면 귀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그대로 참답게 해 나가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자유스러울 수 있고 당당하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없으면 끌어다 쓸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며, 또는 법신이 될 수 있으며,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사니 화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가 사는 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것은 그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재료가 다 돼 있다는 사실, 여여하다는 사실, 청정하다는 사실,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다는,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 근원을, 근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견을 아주 작게 써서 '요거는 요거는' 이러고는 그냥 자꾸 따로따로 가르니 그것이 지혜가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속을 썩여요

질문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같이 속을 썩이네요. 마음공부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건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기를 놔두고 상대를 믿는다면, 자기 빼놓고 상대를 믿는 것이, 그 믿는다고 하더라도 대신 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똑바로 아시고, 똑바로 행하시고, 진짜로 믿어야 그 도리가, 무궁무진한 도리가 바로 나오고 '이 세상에 우주 천체가, 은하계나 태양이나 돌아가는 이 우주 천체가 이 우리네들 살림살이와 똑같구나. 수명이 짧고 길고 그럴 뿐이지 그것은 똑같구나.' 하는 거를 느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투를 잘한다, 술을 잘 먹는다 그래서 속이 썩는다 이러더라도, 그리고 하루 이틀 안 들어온다 이러더라도, 자식이 잘못하고 안 들어온다 이러더라도 입으로 욕을 하고 그걸 말로다가 끌려고 그러면 절대 끌리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마음인데, 둘이 아닌 주인공인데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잖아!' 하고서 열흘이 됐든 스무 날이 됐든 들어오면 부드럽게 말해 주고 "그 스무 날이나 다니면서 몸 해쳐지면 어떡하느냐." 외려 위로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저 사람이 부처가 됐나?' 얼른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생각하는 대로 입력이 되면서 '에이! 뭐, 해 봐도 만날 그 타령이고….' 인제 그때는 하기가 싫어져요, 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먹게 되는 거고요.

자기가 스스로 하기 싫고 스스로 먹기 싫고 그래야 안 먹는 거지 남이 먹지 말란다고 안 먹고 남이 욕을 한다고 그거 듣나요? 마음으로 고장 난 건 마음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데서도 부드럽게 해 주시고요. 자식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업이 그냥 입력된 게 다 없어지고 새 입력이 들어가서 모두 물러서게 하죠, 녹여 버리고. 용광로에다 다 넣듯이.

지금 아상이나 아만이나 이런 게 말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습관이 되고 관습이 돼 가지고 그냥 남을 섭섭하게 하기가 일쑤입니다. 어떠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주인공에다 맡기지 상대방을 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느니, 네가 미우니' 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 참견하다 보면 자기가 가는 길을 잊어버려요. 도의 길은 관 속에 들어가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탓을 하고 그런다면 물질세계에 사는 거기에 얽매이는 거지, 그게 도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뚱이가 통입니다. 통 안에는 별의별 그 모든 생명들 의식들이, 즉 저희들이 살아온 그 의식들이, 차례차례로 업보며 유전성이며 다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게 팥죽과 같지요. 팥죽 방울 나오듯 하는 거죠. 그 통에는 팥죽이 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팥죽 방울을 나오지 않게 하려면 불을 첫째 물려야 합니다. 불을 물리면 팥죽 방울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죽은 세상을 공부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산 세상은 공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세상을 다 알아야 보이지 않는 데서 산 세상을 둘 아니게 이끌고 나가죠. 그러니깐 '죽어야 너를 본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죽으러 가는 놈이 이것 탓하고 저것 탓하고…,

내가 왜 이 집 짓는 데도 상관 안 하느냐. 이거 봐요. 부처가 있으면 할 거고 없으면 고만이지 나한테 꼬리표 붙여 놨습니까, 그 절 지으라고? 돈이 없어도 그놈이 있으면 할 거고 돈이 있어도 아니면 못할 거고 그런데 아, 그놈이 하는 거를 내가 시자로서, 둘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걱정을, 걱정할 거나 안 할 거나 다 한단 말입니다, 그냥. '왜 공부가 안되느냐.' '왜 답답하냐.' 이런 것도 걱정이죠. 그것도 그놈한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딴 놈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만 아상을 끊으려고 하고 이런대서야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게? 물 흐르듯 하는 건데.

물에는 바로 똥물이나 구정물, 핏물, 고름물, 흙탕물, 맑은 물 다 섞인 게 한바다예요. 바다라면 그걸 다 가라앉혀서 그냥 아무것이 들어가도 바닷물이지 똥물이라고 안 그럽니다. 더군다나 그 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똥물이든 핏물이든 젖는 것이 법의 도리다. 젖는 거. 어디에나 다 젖죠. 그러니 똥물에 젖는 거나 맑은 물에 젖는 거나 핏물에 젖는 거나 젖는 거는 매일반인데 이거는 내버리고 저거는 갖고 이럭하면 그 젖는 도리를, 크게 생각해서 광대하고 무변한 그 도리를 절대 납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죽으러 가는데, 만약에 사찰에서 무슨 일을 주지라든가 뭐, 그 아랫사람이 뭐를 했는데 이거를 그거 서로 얘기를 안 하고 한 것도 있고 얘기를 하고 한 것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개의치 말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이, 형님이 되면 "형님!" 아우가 되면 "아우, 그건 나한테 이렇게 말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잖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 형님, 이럭하고 이러이러해서 그랬어요." 하고 얘기를 할 때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꽁하고 여기다가 넣어 둔단 말입니다. 넣어 두니까 같이 사는 것도 밉고 같이 보는 것도 뭐 그렇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색한 게. 그런 게 자꾸 싹튼단 말입니다. 싹트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때는 다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헤어져 버리죠, 마음이. 그러면 육체도 '어이구, 내가 이럭하고 살면 뭘 해.' 그러곤 이쪽으로도 떠나고 싶고 저쪽으로도 떠나고 싶은 그런 충격이 드는 거죠. 우린 비구니만 그런 게 아니라 비구도 그렇고 비구니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럭하고 어떤 사람은 그럭하지 말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상대방이 얼마만큼 다져졌나 그걸 보기 위해서 고승들끼리 문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말고 일행이 뚱그렇게 그려 놓고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너 여기 그어 놓은 데 들어오면 그냥 안 둔다." 하니깐 아무 소리 없이 가서는 그 뚱그렇게 그려 놓은 거를 발로 쓱쓱 지워 버리고선 합장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 어떠세요? 그만큼 되려면 지금 우리 중들도 어떻게 집을 짓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서로 좋게 얘기해서 좀 거슬리면 "이건 이렇게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님은 어떠세요?" 또 아우가 그랬으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우는 어떠냐?" 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얼마나 화목하고 또 얼마나 그것이, 즉 말하자면 죽은 세상의 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죠. 가고 옴이 없이 왕래하면서 가고 오고, 함이 없이 일체 법을 다 행하니까 말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행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참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만일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한다면 그 길을 당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사도 놓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잘된다 못된다 이런 말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러면서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어차피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 번 다 죽는데 그걸 뭘 그렇게 연연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저 오는 거 내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말고 그냥 편리하게 사람의 도리로 그냥 사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 **그저 오는 거 내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말고**
> **그냥 편리하게 사람의 도리로 사는 거,**
> **이거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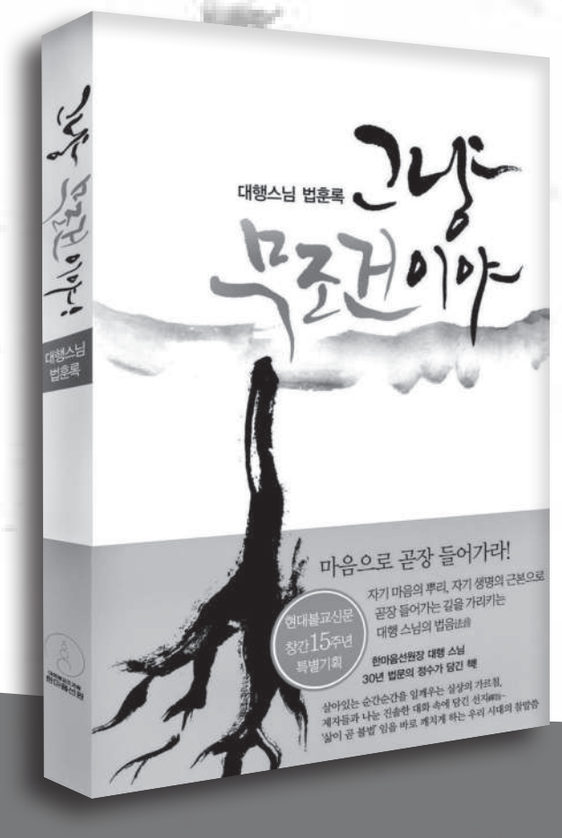
이 마음도리 이해하려면

질문 불교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의 이치를 이해해야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마음 도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변 여러분이 진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을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 주인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만약에 병이 있다면 '야, 영원한 친구여! 병이 난 것도 바로 너가 있음으로써 났으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이 친구야! 심부름을 이 몸뚱이가 잘하게 하려면 아, 다리를 낫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다리뿐이 아니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해 나간다면 그게 실험도 되고 바로 체험도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서 그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 뭐, 무슨 소리 하고 그러나요? 그냥 갖다 놓으면 집어서 벽돌 쌓죠. 서까래 갖다 놓으면 그냥 올려놔요, 아무 소리 없이. 또 탑을 쌓을 때도 돌 갖다 놓으면 그냥 쌓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탑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다 보면 스스로서 봉오라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지금도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



이미령
칼럼니스트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마무리됐다
분주했던 경내도 이젠 조용해져
연초부터 오직 이날만을 준비해

마치며 '가난한 노파의 등불' 상기
목련존자 나서도 꺼지지 않은 燈
"부처님오신날 이후 생각하라" 교훈

화려한 행사로만 생명 유지 못해
찬란한 등불 밑이 더 어두운 법
불교계는 자기 발밑을 비춰봐야

사찰 안이 고요하다. 주지 스님도, 원주 스님도, 부전 스님도, 종무원들도 보이지 않는다. 공양간으로 가본다. 부처님오신날 그 많은 대중에게 먹을거리 지어내느라 부산했던 솥이며 냄비, 커다란 양푼들 모두 깨끗하게 씻어 물기 빠지라고 엎어놓은 채 공양간 보살님도 어딜 가셨는지 보이지 않는다. 다들 잠잠하시다. 부처님오신날이 지나니 사찰을 드나들던 모든 인적이 약속이나 한 듯 다 끊어졌다. 고요함만이 가득한 경내엔 높이 내걸린 연등이 하릴없이 봄바람에 흔들린다.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 오직 그날 하루를 위해 참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왔다. 등을 만들어 법당이며 경내 뜨락 위며, 마을 입구며, 자동차 씽씽 달리는 도로에까지 등을 내거느라 얼마나 고생했던가.

연등행렬에 참여하려고 청년회, 학생회는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커다란 등을 만드느라 정말 힘들었다. 공양간에서는 몰려드는 신도들과 대중에게 맛깔스런 절밥을 대접하려고 또 얼마나 비지땀을 흘렸을까. 이 모든 일들을 총지휘하느라 올해 초부터 스님들도 발을 동동거리며 부지런히 오가셨을 터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절 신도만이 아닌, 평소 발걸음이 뜸하던 신도의 가족들, 그리고 데면데면 지나치던 이웃들과 행인들이 절에 오는 날이다. 불사라면 멀찌감치 달아나던 사람들도 부처님오신날이니 연등 하나 쯤을 밝혀야하지 않겠느냐며 지갑을 열고 흔쾌히 불전함에 시주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던가.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느라 반년을 보내고, 부처님오신날의 수입에 의지해서 나머지 반년을 산다고.

그 어마어마한 행사가 이제 막을 내렸고, 잠깐의 휴식기를 거친 뒤 불교계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초파일을 무사히 지낸 뒤 바람만이 고요히 지나는 사찰 경내를 거닐면 새삼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가난한 노파의 등불' 이다.

"아, 그 이야기를 또 합니까"라고 진저리를 치는 분들이 계실까? 그런데 가난한 할머니의 등불이야기는 정작 부처님오신날이 지나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도 어마어마한 재력가도 평범한 이웃들도 모두가 등불을 밝히며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고 다들 돌아간 이후, 부처님은 사원을 환히 밝힌 등불을 모두 끄도록 목련존자에게 이르시지 않았던가.

목련존자는 모든 이들의 원을 담은 등불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씩 꺼나갔고, 존자의 손끝에서 세상 모든 등불은 그렇게 사위어갔다. 그러나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할머니가 간신히 마련한 몇 푼의 돈으로 기름을 사서 밝힌 등불은 어땠는가. 바람에도 목련존자의 손으로도 꺼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정성으로 등을 밝히라는 메시지보다 부처님오신날 그 이후 불교계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절실하게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이웃을 살피고, 세속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힘겨운 이들을 든든하게 후원하고 지지하며, 저들이 조금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일, 그리고 불교계가 자정의 힘을 갖추어 온 세상 양심들의 마중물이 되는 일이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만 화려하면 그 생명이 얼마나 오래갈까. 찬란한 등불 바로 밑이 더 어둔 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다행히 가난한 할머니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무엇보다 불교계는 자기 발밑을 비춰볼 일이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어떻게 빛을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일이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냉장고 비우기=탐욕 없애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다. 우리 집의 경우 전기세, 수도세 등은 언제나 같은 평수 아파트의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같은 평수의 평균치를 웃도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다. 평소 늘 과하다고 느껴왔기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고지서에 그림으로 비교분석의 수치가 나오니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까? 이유는 간단하다. 먹을 것들이 냉장고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산골에서 살 때는 냉장고가 없었다. 시원한 우물에 참외 동동 띄웠다가 먹어도 시원했다. 과일이나 야채는 밭에서 필요할 때마다 따서 먹으니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 예전에는 조그만 냉장고 하나로 6인 가족이 너끈히 지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대용량의 냉장고에 그것도 모자라 냉동고까지 구비하고 산다. 게다가 집 앞에 즐비한 대형 마트를 수시로 드나들며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지"라며 대량묶음 상품, 1+1 상품들을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들이다 보니 냉장고는 늘 음식물로 차고 넘친다. 많은 경우, 냉장고로 들어간 음식들은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냉장고가 120 l 크기에서 최근 901 l 까지 등장했다니 커져만 가는 냉장고에 우리가 채워 넣은 것은 무엇일까? 결국 쓰레기가 될 음식, 수없이 득실거리는 변종 대장균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망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냉장고가 애물단지처럼 여겨진다.

어린 시절 과실나무에서 갓 따온 과일들을 먹고, 밭에서 막 캐어낸 야채들을 먹어온 입맛 때문에 냉장고에 든 음식을 싫어하니 우리 집 냉장고는 더욱 푸대접 신세다. 요즘은 남편도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싸다고 사다 나르던 장보기를 멈추고 냉장고 비우기를 시도 중이다. 수시로 냉장고 비우기를 시도하지만 비워지는 속도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요즘은 미니멀리즘의 흐름을 타고 냉장고 크기를 줄이고 또 간혹 없이 사는 사람도 종종 있는 걸 본다.

우리나라에서 냉장고 없이 산 사람의 선구자를 꼽는다면 윤호섭 국민대 명예교수일 것이다. 그는 2003년 냉장고와 에어컨을 없앴다. 벌써 16년째 냉장고 없이 살고 있다. 윤 교수는 냉장고를 없앤 후 대형 마트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시장이나 트럭 등에서 딱 필요한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터질 것 같은 우리 집 냉장고와 평균을 넘어선 음식물 쓰레기 양, 이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윤 교수의 소비 방식에서 발견한다. 대형 냉장고 소비 세계 1위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윤 교수는 이렇게 묻는다.

"냉장고 없이 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큰 냉장고를 비싸게 주고 사서 그 안에 음식물을 넣고 썩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나 역시 그 이상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한 방송국에서 냉장고 비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결과 여느 가정집 냉장고에 든 음식물만으로 40여 일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 집의 경우는 어떨까? 이제 시작 단계인 냉장고 비우기를 통해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욕심과 어리석음도 말끔히 비워내 봐야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日 반출 백제금동관음상 환수 나서야

지난해 일본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에 대한 국내 환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재)문화유산회복재단과 충청남도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은 5월 8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 지자체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뉴거버넌스를 구성해 연내 환수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도 이미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 환수 활동 및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한 상황이며 오는 5월 17일 제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 환수 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및 활동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국외 문화재 환수와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충남도와 부여군에서 적극적으로 환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불교계는 아직 별다른 행보가 없다.

현재 백제금동관음입상은 상하이박물관 문물보호과학기술센터에 소장돼 있다. 백제금동관음입상은 연구 · 분석 이후 상하이박물관의 '영원한 실크로드-불교예술의 기원' 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최응천 동국대 교수의 제보에 따르면 백제 불교미술 전성기의 불상에 대해 중국 측은 "수와 당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서산 마애불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백제의 미소를 가졌다는 극찬을 받은 백제금동관음입상이 '중국불교미술의 일부' 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생겼다.

불교계도 더 이상 백제금동관음입상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부여군과 충남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불교도 동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의 환수 운동 동참을 바란다.

봉은사 거사림 창립에 부쳐

서울 봉은사가 5월 10일 거사림회를 창립했다. 모집 공고 결과 15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인선위원회를 거쳐 130명으로 출범했다.

인도 불교에서 거사는 부유한 자산가를 의미한다. 평민 계층 중 자산을 일군 이들로 불교 외호와 재가 중심의 신행문화를 이끈 존재들이었다.

근현대 한국불교계에서도 훌륭한 거사들이 많았지만 조직화는 더뎠다. 하나 둘씩 언제부터인가 불교계에서는 '거사림회' 로 대표되는 남성 불자 조직이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한 사찰이 부쩍 많아졌다.

불자 감소와 노령화, 신행 패턴 변화 등의 이유가 복합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사불교를 구축하겠다는 사찰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거사들은 신행활동과 함께 사찰의 행사마다 적극적인 활동을 담당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한마음선원 법형제회의 경우 지원 환경 조성을 비롯해 수련회와 합창단 활동 등을 통해 도반 간의 법연을 나누고 있다.

거사림회 조직은 여성신도 일변도의 한국불교에서 신도 조직화를 일구기 위한 시작이다. 이를 위해선 사찰 측의 관심과 기존 신도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등이 필요하다.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형식적인 부파불교를 거부하고 수행과 실천의 대승불교 요체를 드러냈다. 한국불교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한 길도 이러한 이 시대 유마거사들을 배출하는 데 있다.

봉은사의 거사림회 창립이 서울 강남의 남성불자들의 결집을 넘어 한국불교 전반적인 거사불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부처님오신날 2019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사)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
시대산 영 천 사
(천년고찰)
"부처님 오신 날 축하 합니다."
총무원장 석 혜 암
종도모집
21세기를 주도할
스님(법사)을 모십니다.
(임명장,추대장,등록증 등
발급해드립니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010-8224-1688

부처님오신날 2019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승보종찰 송광사 서울분원
법 련 사
주 지 진 경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
Tel 02-733-5322 Fax 02-733-5379
bubryun5322@hanmail.net